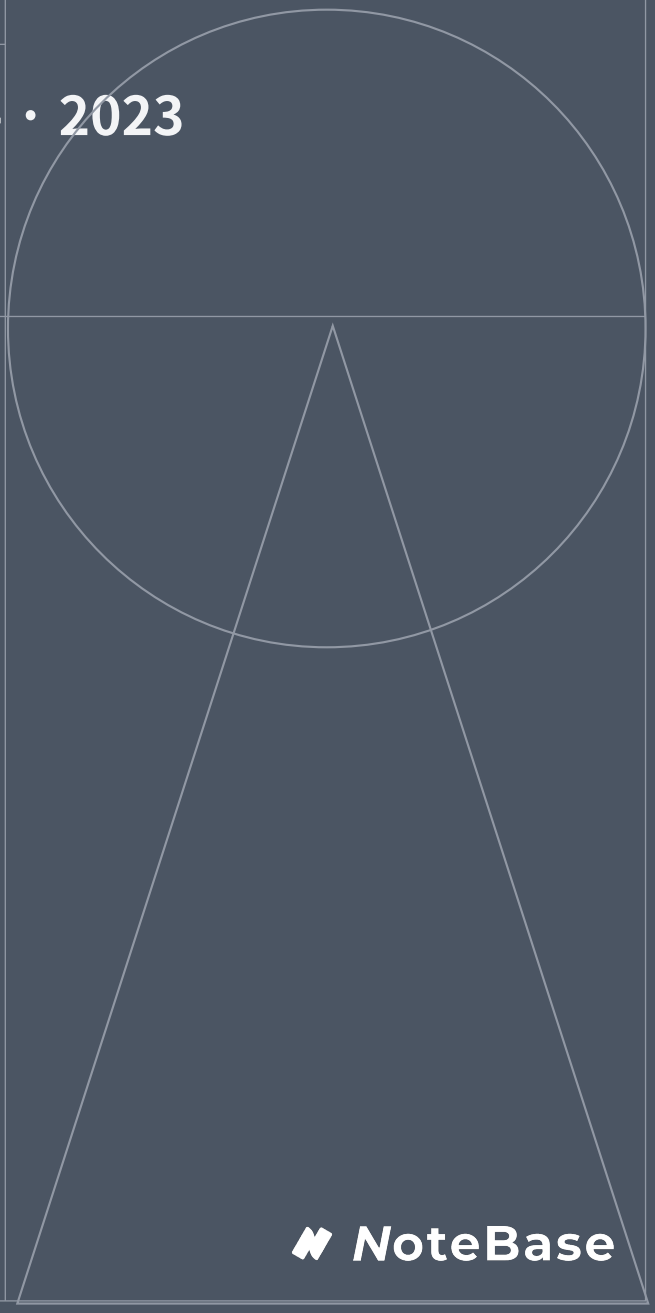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3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3

문 1. (주)세무는 20x1년 초 ₩100,000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당시 거래원가 ₩20,000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20x1년 말 현재 동 토지와 동등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1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로 취득관련 거래원가 ₩5,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주)세무는 20x1년 말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동 토지를 매도할 경우 거래원가 ₩20,000을 차감하고 ₩98,000을 수취할 수 있다. 20x1년 말 현재 토지의 역사적원가, 공정가치, 현행원가를 금 액이 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역사적원가 > 현행원가 > 공정가치

②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 현행원가

③ 현행원가 > 공정가치 > 역사적원가

④ 현행원가 >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⑤ 공정가치 > 역사적원가 > 현행원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역사적원가, 공정가치, 현행원가가 거래원가를 각각 어떻게 반영하는지 구분하여 세 측정금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 시 지급대가는 100,000원이고 취득 당시 거래원가는 20,000원이다.
20x1년 말 동등한 토지의 취득가격은 110,000원이고 취득 관련 거래원가는 5,000원이다.
20x1년 말 매도 시 거래원가 20,000원을 차감한 순수취액은 98,000원이다.

사용할 기준

역사적원가는 자산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가와 취득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을 취득할 때 지급할 가격과 그 취득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는 가격이며, 매도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역사적원가: 취득대가 100,000원에 취득 당시 거래원가 20,000원을 더하므로 120,000원이다.
2. 현행원가: 동등한 토지의 현재 취득가격 110,000원에 현재 취득 거래원가 5,000원을 더하므로 115,000원이다.
3. 공정가치: 순수취액 98,000원은 매도 거래원가 20,000원을 이미 차감한 금액이다. 공정가치는 매도 거래원가 차감 전 가격이므로 118,000원이다.
4. 따라서 크기 순서는 역사적원가 120,000원 > 공정가치 118,000원 > 현행원가 115,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현행원가 > 공정가치'가 틀렸다. 현행원가는 115,000원, 공정가치는 118,000원이므로 올바르게는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 현행원가'이다.
② O — 역사적원가 120,000원, 공정가치 118,000원, 현행원가 115,000원이므로 제시된 순서가 정확하다.
③ X — '현행원가 > 공정가치 > 역사적원가'가 틀렸다. 현행원가가 가장 작고 역사적원가가 가장 크므로 올바르게는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 현행원가'이다.
④ X — '현행원가 > 역사적원가'가 틀렸고 공정가치를 가장 작게 둔 것도 틀렸다. 올바르게는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 현행원가'이다.
⑤ X — '공정가치 > 역사적원가'가 틀렸고 현행원가를 역사적원가 바로 아래에 둔 것도 틀렸다. 올바르게는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 현행원가'이다.

오답 포인트

공정가치를 순수취액 98,000원으로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98,000원은 매도 거래원가 2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공정가치는 이를 다시 더한 118,000원이다. 반면 역사적원가와 현행원가에는 각각 해당 시점의 취득 거래원가가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금액이 취득 관점인지 매도 관점인지 구분한다. 취득 관점인 역사적원가와 현행원가에는 취득 거래원가를 더하고, 매도 관점인 공정가치는 매도 거래원가를 차감하기 전 가격으로 환산한 뒤 크기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역사적원가·현행원가는 취득 거래원가 포함, 공정가치는 매도 거래원가 차감 전 가격이다.

NoteBase

문 2. (주)세무는 20x1년 초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운반구(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상각, 재평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으며,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회계처리를 한다.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x2년 말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운반구의 20x1년과 20x2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차량운반구 관련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	₩1,600,000	₩500,000
회수가능액	1,600,000	300,000

① ₩400,000 감소

② ₩600,000 감소

③ ₩900,000 감소

④ ₩1,100,000 감소

⑤ ₩1,300,000 감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구한 뒤, 재평가감소액과 손상차손 중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을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1년 초 취득원가는 2,000,000원, 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치는 200,000원이며 정액법을 적용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모두 1,600,000원이다.
20×2년 말 공정가치는 500,000원, 회수가능액은 300,000원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20×1년 말에 생긴 재평가잉여금 200,000원이 20×2년 말에도 남아 있다.

사용할 공식

정액법 감가상각비=감가상각대상액내용연수=장부금액-잔존가치잔여 내용연수
손상차손=장부금액-회수가능액
재평가모형에서는 하락액을 같은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이 남아 있는 범위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차감하고, 그 초과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년 감가상각비는 $\frac{2,000,000-200,000}{3}=600,000$원이고,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1,400,000원이다. 이를 공정가치 1,600,000원으로 올리므로 재평가잉여금은 200,000원이다.
2. 20×2년 감가상각비는 $\frac{1,600,000-200,000}{2}=700,000$원이고, 연말 조정 전 장부금액은 900,000원이다.
3. 공정가치 500,000원까지의 재평가감소액 400,000원 중 200,000원은 기존 재평가잉여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200,000원은 당기손실이다.
4. 공정가치 500,000원에서 회수가능액 300,000원까지 추가로 감소한 200,000원은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처분부대원가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정가치 500,000원을 회수가능액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5. 20×2년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감가상각비 700,000원,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재평가손실 200,000원, 손상차손 200,000원을 합한 1,10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400,000원은 연말 가치하락 중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합계만 계산한 금액이다. 20×2년 감가상각비 700,000원도 포함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1,100,000원 감소이다.
② X — 600,000원은 연말 조정 전 장부금액 900,000원과 회수가능액 300,000원의 차이만 본 금액이다. 기존 재평가잉여금 20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되고 감가상각비 700,000원은 별도로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올바르게는 1,100,000원 감소이다.
③ X — 900,000원은 감가상각비 700,000원과 공정가치까지의 재평가감소액 중 당기손실 200,000원만 합한 금액이다. 공정가치 500,000원에서 회수가능액 300,000원까지의 손상차손 200,000원도 포함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1,100,000원 감소이다.
④ O — 감가상각비 700,000원과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가치하락액 400,000원을 합하면 당기순이익은 1,100,000원 감소한다.
⑤ X — 1,300,000원은 장부금액 900,000원에서 회수가능액 300,000원까지의 감소액 600,000원을 모두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70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기존 재평가잉여금 200,000원만큼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1,100,000원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20×2년의 가치하락액 전부가 당기손익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다. 기존 재평가잉여금 200,000원은 먼저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한다. 또한 공정가치 500,000원과 회수가능액 300,000원을 같게 보거나, 연중 감가상각비 700,000원을 누락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평가자산의 손상 문제는 당기 감가상각비 계산, 조정 전 장부금액 계산, 공정가치까지의 재평가감소 배분, 회수가능액까지의 손상 인식, 당기손익 항목 합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재평가자산의 하락은 기존 재평가잉여금까지 기타포괄손익, 초과분은 당기손익이며, 당기순이익 영향에는 감가상각비도 포함한다.

NoteBase

문 3. (주)세무는 20x1년 초 (주)한국이 동 일자로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4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39,240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며, 취득당시 손상은 없었다. (주)세무는 20x1년 말 (주)한국으로부터 20x1년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x1년 말 동 금융자산에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 (주)세무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20x2년부터 만기까지 매년 말 이자 ₩70,000과 만기에 원금 ₩700,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금융자산의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2%	10%	12%
1	0.9091	0.8929	0.9091	0.8929
2	0.8265	0.7972	1.7355	1.6901
3	0.7513	0.7118	2.4869	2.4018
4	0.6830	0.6355	3.1699	3.0374

① ₩139,247 감소

② ₩164,447 감소

③ ₩172,854 감소

④ ₩181,772 감소

⑤ ₩285,597 감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유효이자수익과 신용손상차손을 각각 계산한 뒤, 두 금액의 순효과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취득원가: 939,240원
표시이자 수취액: 1,000,000원 × 10% = 100,000원
취득 시 유효이자율: 12%
20x1년 말 신용손상 인식 직전 총장부금액: 939,240원 + 유효이자수익 - 현금이자 100,000원
예상 현금흐름: 20x2년부터 3년간 매년 말 이자 70,000원, 만기에 원금 700,000원
주의할 조건: 신용손상차손은 예상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 12%로 할인하여 계산하고, 20x1년 당기순이익에는 유효이자수익과 손상차손을 모두 반영한다.

사용할 공식

유효이자수익 = 기초 총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기말 총장부금액 = 기초 총장부금액 + 유효이자수익 - 현금이자 수취액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연간 예상 이자 × 3기간 정상연금현가계수 + 예상 원금 × 3기간 단일금액현가계수
손상차손 = 신용손상 인식 직전 총장부금액 -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당기순이익 영향 = 유효이자수익 - 손상차손
최초 유효이자율은 취득 당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므로 이자수익과 신용손상 후 예상 현금흐름의 할인에 동일하게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20x1년 유효이자수익은 939,240원 × 12% = 112,708.8원이다.
2. 신용손상 인식 직전 총장부금액은 939,240원 + 112,708.8원 - 100,000원 = 951,948.8원이다.
3. 표의 12% 3기간 계수를 적용한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70,000원 × 2.4018 + 700,000원 × 0.7118 = 168,126원 + 498,260원 = 666,386원이다.
4. 손상차손은 951,948.8원 - 666,386원 = 285,562.8원이다.
5. 20x1년 당기순이익 순효과는 이자수익 112,708.8원 - 손상차손 285,562.8원 = -172,854원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172,854원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X — ‘139,247원 감소’는 유효이자수익과 손상차손을 모두 반영한 순감소액 172,854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172,854원 감소’이다.
② X — ‘164,447원 감소’는 계산된 순효과 -172,854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172,854원 감소’이다.
③ O — 유효이자수익 112,708.8원에서 손상차손 285,562.8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172,854원 감소한다.
④ X — ‘181,772원 감소’는 계산된 순효과 -172,854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172,854원 감소’이다.
⑤ X — ‘285,597원 감소’는 손상에 따른 감소만을 순이익 영향으로 보는 식의 오류를 유도하는 금액이며, 당기에 인식한 유효이자수익을 함께 상계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172,854원 감소’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표시이자 100,000원을 이자수익으로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112,708.8원으로 계산한다. 또한 손상차손만 구하고 끝내면 안 되며, 당기순이익 영향은 이자수익과 손상차손의 순액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유효이자수익을 계산하고 현금이자를 차감하여 손상 직전 총장부금액을 구한다. 다음으로 변경된 예상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손상차손을 구한 뒤, 이자수익에서 손상차손을 차감해 당기순이익의 증감액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효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 손상 현재가치의 할인도 최초 유효이자율, 당기순이익은 이자수익과 손상차손의 순액이다.

NoteBase

문 4. (주)세무는 20x1년 초 정부보조금으로 ₩500,000을 수취하여 기계설비(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다. 20x2년 초 (주)세무는 동 기계설비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1,000,000의 지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계설비의 잔존가치는 ₩100,000 증가하고, 내용연수는 1년 연장되었다.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x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정부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① ₩360,000

② ₩380,000

③ ₩400,000

④ ₩420,000

⑤ ₩44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한 기계설비의 장부금액에 자본적 지출을 더한 뒤, 변경된 잔존가치와 잔여내용연수를 반영하여 20x2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2,000,000
정부보조금: ₩500,000(자산 차감법)
20x1년 초 최초 내용연수: 5년, 최초 잔존가치: ₩0
20x2년 초 자본적 지출: ₩1,000,000
변경 후 잔존가치: ₩100,000
20x2년 초 잔여내용연수: 기존 4년 + 연장 1년 = 5년
구해야 할 값: 20x2년도 감가상각비

사용할 공식

정액법 감가상각비=감가상각 대상 장부금액-잔존가치잔여내용연수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므로 최초 감가상각 대상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뺀 금액이다.
20x2년 초 지출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용이 아니라 기계설비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최초 장부금액은 ₩2,000,000 - ₩500,000 = ₩1,500,000이다.
2. 20x1년도 감가상각비는 ₩1,500,000 ÷ 5년 = ₩300,000이다.
3. 20x2년 초 자본적 지출 직전 장부금액은 ₩1,500,000 - ₩300,000 = ₩1,200,000이다.
4.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장부금액은 ₩1,200,000 + ₩1,000,000 = ₩2,200,000이다.
5. 잔존가치 ₩100,000을 차감하고 변경된 잔여내용연수 5년으로 나눈다.

(₩2,200,000 - ₩100,000) ÷ 5년 = ₩420,000

따라서 20x2년도 감가상각비는 ₩420,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360,000이라는 금액이 틀렸다. 20x2년 초 장부금액 ₩2,200,000에서 잔존가치 ₩100,000을 차감한 후 잔여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420,000이다.

② X — ₩380,000이라는 금액이 틀렸다. 변경된 감가상각대상금액 ₩2,100,000과 잔여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면 올바른 금액은 ₩420,000이다.

③ X — ₩400,000이라는 금액이 틀렸다. 잔존가치 증가뿐 아니라 정부보조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 20x1년 감가상각 및 자본적 지출을 모두 반영하면 올바른 금액은 ₩420,000이다.

④ O — 변경된 감가상각대상금액 ₩2,100,000을 잔여내용연수 5년으로 나눈 ₩420,000과 일치한다.

⑤ X — ₩440,000이라는 금액이 틀렸다. 변경 후 잔존가치 ₩100,000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420,000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20x2년 초의 자본적 지출 ₩1,000,000을 장부금액에 가산하면서도, 이미 인식한 20x1년 감가상각비 ₩300,000을 먼저 차감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내용연수 1년 연장은 최초 내용연수를 6년으로 단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20x2년 초 남은 4년에 1년을 더하여 잔여내용연수를 5년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먼저 구하고, 자본적 지출을 가감한 다음, 변경된 잔존가치와 그 시점의 잔여내용연수로 이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자산 차감법의 정부보조금은 취득원가에서 빼고, 자본적 지출은 장부금액에 더하며, 내용연수 변경은 변경 시점의 잔여기간에 반영한다.

NoteBase

문 5.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②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재고자산처럼 재고자산의 원가를 다른 자산계정에 배분하는 경우, 다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단위원가 결정방법,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및 비용 인식 원칙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취득원가에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한 정상적인 원가만 포함하며,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 완성원가와 예상 판매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금액은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한 정상적인 원가가 아니므로 취득원가에서 제외하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O — 기업에 대한 성격과 용도가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한다. 성격이나 용도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의 적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확정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한 수량은 계약가격을 기초로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한다.
④ O — 자가건설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되어 다른 자산계정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그 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한다.
⑤ O —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과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어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각 항목의 실제 원가를 대응시키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순실현가능가치를 단순히 일반 판매가격으로만 계산한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확정판매계약 이행용인지 일반 판매용인지에 따라 적용할 판매가격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보유 목적은 반드시 고려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자산 문항은 '정상적인 원가만 취득원가에 포함', '성격과 용도가 같으면 같은 원가공식', '순실현가능가치는 보유 목적을 고려', '다른 자산에 배분되면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화', '비교환·특정 프로젝트 항목은 개별법'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 처분가액이므로 무엇을 위해 보유하는지가 추정의 출발점이다.

NoteBase

문 6.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 이러한 부동산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②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다른 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자산으로 대체한다.

③ 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⑤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부동산 보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투자부동산의 분류, 용도 변경에 따른 대체, 보상금 및 공정가치 차이의 손익 인식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자가사용부동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실체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므로, 연결실체 내부에 임대한 부동산은 연결실체 관점에서 자가사용부동산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리스한 부동산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가 사용하는 자가사용부동산이므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소유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부동산이 될 수 있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이다.
② O — 투자부동산과 다른 자산 사이의 대체는 실제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단순한 경영진의 사용 의도 변경만으로는 대체하지 않는다.
③ O — 투자부동산의 손상·멸실·포기에 관하여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의 손상이나 제거와 보상금의 인식은 별개의 경제적 사건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O —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에는 대체일의 공정가치와 종전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재고자산을 판매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일관된다.
⑤ O —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부수적 용역이 전체 계약에서 경미하면 임대수익 목적이 본질이므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반대로 용역의 비중이 유의적이면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관점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법적으로는 계열회사 간 임대이지만, 연결관점에서는 연결실체가 스스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또한 ③의 보상금은 손상차손과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게 될 때 별도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임대 상대방이 연결실체 내부인지 확인하고, 개별재무제표인지 연결재무제표인지 구분한다. 이어서 대체는 실제 용도 변경이 있는지, 보상금은 받을 권리가 생겼는지, 공정가치모형으로 대체할 때 차액을 어디에 인식하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연결실체 내부 임대는 연결재무제표상 자가사용, 대체는 실제 용도 변경 때만, 보상은 받을 수 있을 때 손익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7. (주)세무는 20x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2,000,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1,900,504에 발행하고, 사채발행비 ₩92,604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발행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며, (주)세무는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x1년도 이자비용으로 ₩216,948을 인식하였다. 20x2년 말 (주)세무가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2,000,000에 사채 전부를 조기상환하였다면, 사채의 상환으로 인식할 사채상환이익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8%	10%
1	0.9259	0.9091	0.9259	0.9091
2	0.8573	0.8265	1.7833	1.7355
3	0.7938	0.7513	2.5771	2.4869

① ₩51,325

② ₩61,345

③ ₩88,630

④ ₩123,656

⑤ ₩16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채발행비를 차감한 최초 장부금액과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조기상환 직전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구한 뒤, 상환대가와의 차이인 사채상환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2,000,000이고 매년 지급하는 표시이자는 ₩2,000,000 × 8% = ₩160,000이다.
사채발행비는 금융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므로 최초 장부금액은 ₩1,900,504 - ₩92,604 = ₩1,807,900이다.
20x1년도 이자비용 ₩216,948이 주어졌으므로 실제 유효이자율을 역산해야 한다.
20x2년 말 지급한 ₩2,000,000에는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환 직전 장부금액을 구할 때 20x2년도 표시이자 ₩160,000을 미리 차감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유효이자율은 r=(당기 이자비용)/(기초 장부금액)이다.
상환 직전 장부금액은 기초 장부금액+당기 이자비용이다. 다만 상환대가에 경과이자가 포함되지 않고 표시이자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표시이자를 차감한다.
사채상환이익은 상환 직전 장부금액-상환대가이다. 장부금액보다 적은 대가로 부채를 제거하면 그 차이가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유효이자율: ₩216,948 ÷ ₩1,807,900 = 12%
2. 20x1년 말 표시이자 지급 후 장부금액: ₩1,807,900 + ₩216,948 - ₩160,000 = ₩1,864,848
3. 20x2년도 이자비용: ₩1,864,848 × 12% = ₩223,781.76, 즉 반올림하면 ₩223,782이다.
4. 20x2년 말 상환 직전 장부금액: ₩1,864,848 + ₩223,782 = ₩2,088,630
5. 사채상환이익: ₩2,088,630 - ₩2,000,000 = ₩88,630이다.

선지 판단

① X — ₩51,325라는 금액은 상환 직전 장부금액 ₩2,088,630과 상환대가 ₩2,000,000의 차이가 아니다. 올바른 사채상환이익은 ₩88,630이다.
② X — ₩61,345라는 금액은 유효이자율 12%로 계산한 20x2년도 이자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른 사채상환이익은 ₩88,630이다.
③ O — 상환 직전 장부금액 ₩2,088,630에서 경과이자를 포함한 상환대가 ₩2,000,000을 차감하면 사채상환이익은 ₩88,630이다.
④ X — ₩123,656이라는 금액은 사채발행비를 차감한 최초 장부금액과 그로부터 역산한 유효이자율을 함께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사채상환이익은 ₩88,630이다.
⑤ X — ₩160,000은 액면금액에 표시이자율 8%를 곱한 연간 현금이자이지 사채상환이익이 아니다. 올바른 사채상환이익은 ₩88,630이다.

오답 포인트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 10%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사채발행비 때문에 최초 장부금액이 달라졌고, 문제에서 제시한 20x1년도 이자비용으로 역산한 실제 유효이자율은 12%이다. 또한 상환금액이 경과이자를 포함한다는 조건을 놓치고 20x2년도 표시이자 ₩160,000을 상환 직전 장부금액에서 다시 차감하면 비교 기준이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채 조기상환 문제는 발행비를 반영한 최초 장부금액을 구하고, 유효이자율을 확인한 다음, 상환 직전 장부금액과 실제 상환대가를 같은 이자 포함 기준으로 맞추어 비교한다. 장부금액이 상환대가보다 크면 차이는 상환이익이고, 작으면 상환손실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발행비는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상환손익은 같은 이자 포함 기준의 장부금액과 상환대가를 비교한다.

NoteBase

문 8.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세무는 저가기준으로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총이익은? (단, 정상파손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파손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구분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80,000	₩100,000
총매입액	806,000	1,000,000
매입할인	50,000	-
총매출액	-	1,050,000
매출환입	-	24,000
순인상액	-	95,000
순인하액	-	50,000
정상파손	-	50,000
비정상파손	10,000	15,000

① ₩221,000

② ₩227,800

③ ₩237,800

④ ₩245,000

⑤ ₩261,8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저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의 원가율을 구한 뒤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매출총이익을 산출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순매출액은 1,050,000원에서 매출환입 24,000원을 차감한 1,026,000원이다.
저가기준의 원가율을 계산할 때 순인상액은 판매가 분모에 포함하고 순인하액은 제외한다. 비정상파손은 재고와 원가율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타비용으로 처리하고, 정상파손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원가율=원가 기준 판매가능재고액판매가 기준 판매가능재고액
매출총이익=순매출액-매출원가
소매재고법은 판매가 기준 기말재고를 먼저 구한 다음 원가율을 곱하여 원가 기준 기말재고로 환산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비정상파손을 제외한 원가 기준 판매가능재고액은 80,000원 + 806,000원 - 50,000원 - 10,000원 = 826,000원이다.
2. 저가기준 원가율의 판매가 분모는 순인하액을 제외하고 비정상파손을 차감하므로 100,000원 + 1,000,000원 + 95,000원 - 15,000원 = 1,180,000원이다. 따라서 원가율은 $826,000/1,180,000 = 70\%$이다.
3. 판매가 기준 기말재고는 100,000원 + 1,000,000원 + 95,000원 - 50,000원 - 1,026,000원 - 50,000원 - 15,000원 = 54,000원이다.
4. 원가 기준 기말재고는 $54,000 \times 70\% = 37,800$원이다.
5. 비정상파손은 기타비용이므로 매출원가는 836,000원 - 10,000원 - 37,800원 = 788,200원이다.
6. 매출총이익은 1,026,000원 - 788,200원 = 237,8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계산된 매출총이익 237,8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221,000원이 아니라 237,800원이다.
② X — 227,800원은 비정상파손 원가 10,000원을 매출원가에 포함할 때 나오는 값이다. 비정상파손은 기타비용이므로 매출총이익은 237,800원이다.
③ O — 순매출액 1,026,000원에서 매출원가 788,200원을 차감하면 237,800원이므로 일치한다.
④ X — 계산된 매출총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245,000원이 아니라 237,800원이다.
⑤ X — 261,800원은 순매출액 대신 총매출액 1,050,000원을 사용하면 나오는 값이다. 매출환입 24,000원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사용하므로 237,8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저가기준 원가율의 판매가 분모에서 순인상액은 포함하지만 순인하액은 제외한다. 또한 정상파손은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파손은 기타비용으로 분리하며, 매출총이익 계산에는 총매출액이 아니라 매출환입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매출액 계산 → 비정상파손을 제외한 저가기준 원가율 계산 → 판매가 기준 기말재고 계산 → 원가 기준 기말재고 환산 →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 계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저가기준 원가율은 인상은 포함하고 인하는 제외한다. 정상파손은 매출원가, 비정상파손은 기타비용이다.

NoteBase

문 9.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세무가 20x1년 11월 초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20x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단,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는 것과 설비를 이전하기로 하는 것은 구별되며, 변동대가와 고정대가는 모두 개별 판매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 (주)세무는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고객이 (주)세무의 상호를 사용하고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라이선스에 추가하여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 (주)세무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고객의 월 매출액 중 3%(변동대가)를 판매기준 로열티로 다음달 15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 (주)세무는 설비가 인도되는 시점에 설비의 대가로 ₩1,500,000(고정대가)을 받기로 하였다.
◯ 계약과 동시에 설비를 고객에게 이전하였으며, 고객의 20x1년 11월과 12월의 매출액은 각각 ₩7,000,000과 ₩8,000,000이다.

① ₩210,000
② ₩450,000
③ ₩500,000
④ ₩1,710,000
⑤ ₩1,950,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설비의 통제가 이전된 시점의 고정대가와 실제 고객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판매기준 로열티를 각각 수익으로 인식하여 당기 수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설비는 계약과 동시에 고객에게 이전되었으므로 20x1년에 설비 대가 1,500,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라이선스의 판매기준 로열티는 고객의 매출이 발생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변동대가와 고정대가는 각각 개별 판매금액을 반영하므로 별도의 재배분은 필요하지 않다.

사용할 공식

월별 판매기준 로열티 = 해당 월 고객 매출액 ×3%
20x1년 수익 = 설비 수익 + 11월 로열티 + 12월 로열티

고객의 매출액에 연동되는 판매기준 로열티이므로 실제 매출이 발생한 11월과 12월의 매출액에 3%를 적용한다.
대금 수령일은 수익 인식 시기를 늦추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1. 11월 로열티: 7,000,000원 × 3\% = 210,000원
2. 12월 로열티: 8,000,000원 × 3\% = 240,000원
3. 20x1년 로열티 수익: 210,000원 + 240,000원 = 450,000원
4. 20x1년 총수익: 1,500,000원 + 450,000원 = 1,950,000원

선지 판단

① X — 210,000원은 11월 로열티만 계산한 금액이다. 12월 로열티 240,000원과 설비 수익 1,500,000원을 포함한 1,95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450,000원은 11월과 12월의 로열티 합계일 뿐이다. 계약과 동시에 이전한 설비 수익 1,500,000원을 더한 1,95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500,000원은 주어진 매출액에 3%를 적용한 로열티도 아니고 설비 수익까지 합한 금액도 아니다. 올바른 20x1년 수익은 1,950,000원이다.
④ X — 1,710,000원은 설비 수익 1,500,000원에 11월 로열티 210,000원만 더한 금액이다. 12월 로열티 240,000원도 20x1년 수익이므로 1,95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설비 수익 1,500,000원과 11·12월 로열티 450,000원을 합하면 1,95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12월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다음 해 1월 15일에 받는다는 문구 때문에 12월분 240,000원을 제외하기 쉽다. 그러나 현금 수령일과 수익 인식 시점은 다르며, 판매기준 로열티는 기초가 되는 고객 매출이 발생한 12월에 인식한다. 또한 로열티만 계산하고 이미 이전된 설비 수익 1,500,000원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행의무별 수익 인식 시점을 구분한다. 재화는 통제가 이전된 시점의 대가를, 판매기준 로열티는 실제 판매가 발생한 기간의 금액을 인식한 뒤 당기 해당액을 모두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설비는 통제 이전 시점, 판매기준 로열티는 판매 발생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수령일은 수익 인식일과 다를 수 있다.

NoteBase

문 10.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이외에도 연차보고서 및 감독기구 제출서류에 반드시 적용한다.

③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는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 하더라도 비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④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표시 원칙 중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 효과, 기준의 적용 범위, 비교정보, 유동성 순서 표시 및 중요성의 적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무제표 표시 원칙은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형식·분류·공시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다.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법인세 효과 차감 전 금액으로 표시하면서 관련 법인세 효과의 합계액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비교정보는 금액 정보뿐 아니라 당기 재무제표의 이해에 목적적합한 서술형 정보에도 포함한다.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지만,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 방법을 사용한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는 기준서의 개별 공시 요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법인세 효과 차감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관련 법인세 효과의 합계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② X. 틀린 표현은 '재무제표 이외에도 연차보고서 및 감독기구 제출서류에 반드시 적용한다'이다. 올바르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에 적용되며, 연차보고서나 감독기구 제출서류에 포함된 재무제표 이외의 정보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 X. 틀린 표현은 '목적적합하더라도 비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서술형 정보도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면 전기의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원칙적으로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로 표시한다. 일부 항목은 유동·비유동으로, 다른 항목은 유동성 순서로 표시하는 혼합 방식도 그 결과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하면 허용된다.
⑤ X. 틀린 표현은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다. 올바르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특정 공시를 요구하더라도 그 공시로 제공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으면 해당 공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기준서가 요구한다'는 문구를 예외 없는 의무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재무제표 표시에는 선택 가능한 법인세 표시 방법, 더 목적적합한 경우의 유동성 순서 표시, 중요하지 않은 공시의 생략과 같은 선택권과 예외가 있다. 또한 비교정보는 숫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더라도'처럼 예외를 부정하는 단정 표현을 먼저 확인한다.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 효과는 순액 표시와 세전 표시가 모두 가능하고, 서술형 비교정보는 목적적합하면 포함하며, 유동성 순서 표시는 더 목적적합하면 허용되고, 중요하지 않은 개별 공시는 생략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타포괄손익은 순액 또는 세전 표시, 비교정보는 목적적합하면 서술형도 포함, 유동성 순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중요하지 않은 공시는 생략 가능이다.

NoteBase

문 11. (주)세무는 20x1년 7월 1일에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14,000,000에 일괄취득하고, 공통으로 발생한 취득 관련 직접원가 ₩1,000,000을 지출하였다. 취득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9,600,000과 ₩6,400,000이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000,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x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하고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① ₩1,380,000

② ₩1,500,000

③ ₩1,610,000

④ ₩1,750,000

⑤ ₩1,89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원가를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 뒤, 건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연수합계법과 월할 계산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 취득원가: 일괄취득대금 14,000,000원 + 공통 직접원가 1,000,000원 = 15,000,000원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6,400,000/(9,600,000 + 6,400,000) = 4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1,000,000원
취득일: 20x1년 7월 1일이므로 20x2년에는 1차 연도분 6개월과 2차 연도분 6개월이 포함된다.

사용할 공식

건물 취득원가 = 총 취득원가 ×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감가상각대상금액 = 건물 취득원가 - 잔존가치
연수합계 = 4 + 3 + 2 + 1 = 10
20x2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 × (4/10) × (6/12) + (3/10) × (6/12)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가격으로 취득했으므로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고, 연수합계법에서는 취득일부터 경과한 각 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월할 적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건물 취득원가는 15,000,000 × 40% = 6,000,000원이다.
2. 감가상각대상금액은 6,000,000 − 1,000,000 = 5,000,000원이다.
3. 20x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차 연도 상각률 4/10을 적용하므로 감가상각비는 5,000,000 × (4/10) × (6/12) = 1,000,000원이다.
4. 20x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2차 연도 상각률 3/10을 적용하므로 감가상각비는 5,000,000 × (3/10) × (6/12) = 750,000원이다.
5. 따라서 20x2년 감가상각비는 1,000,000원 + 750,000원 = 1,75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380,000원은 상대적 공정가치 배분과 두 상각률의 월할 적용으로 구한 1,750,000원과 다르다. 틀린 금액 1,380,000원은 1,75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1,500,000원은 20x2년 상반기의 1차 연도분 1,000,000원과 하반기의 2차 연도분 750,000원을 합한 금액이 아니다. 틀린 금액 1,500,000원은 1,75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1,610,000원은 감가상각대상금액 5,000,000원에 해당 기간별 상각률을 적용한 결과와 다르다. 틀린 금액 1,610,000원은 1,75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20x2년 감가상각비는 5,000,000 × [(4/10) × (6/12) + (3/10) × (6/12)] = 1,750,000원이므로 옳다.
⑤ X — 1,890,000원은 계산 결과 1,750,000원을 초과한다. 틀린 금액 1,890,000원은 1,75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20x2년 전체에 하나의 연수합계율만 적용하면 안 된다. 7월 1일 취득 자산이므로 20x2년 상반기는 1차 연도 상각률 4/10, 하반기는 2차 연도 상각률 3/10을 각각 6개월씩 적용한다. 또한 공통 직접원가 1,000,000원도 일괄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괄취득 문제는 총 취득원가 확정 →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자산별 원가 배분 → 잔존가치 차감 → 결산연도에 걸친 연수합계율을 기간별로 월할 적용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일괄취득은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하고, 연수합계법의 회계연도 중 취득은 상각연도가 바뀌는 시점에서 월할 계산을 나눈다.

NoteBase

문 12. (주)세무는 20x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50,252(유효이자율 연 10%)에 발행하였다. (주)세무는 20x2년 초에 표시이자율을 연 5%(매년 말 이자지급)로, 만기를 20x5년 말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사채권자와 합의하였다. 조건변경과 관련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20x2년 초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동 사채의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8%	10%	12%	5%	8%	10%	12%
1	0.9524	0.9259	0.9091	0.8929	0.9524	0.9259	0.9091	0.8929
2	0.9070	0.8573	0.8265	0.7972	1.8594	1.7833	1.7355	1.6901
3	0.8638	0.7938	0.7513	0.7118	2.7233	2.5771	2.4869	2.4018
4	0.8227	0.7350	0.6830	0.6355	3.5460	3.3121	3.1699	3.0374
5	0.7835	0.6806	0.6209	0.5674	4.3295	3.9927	3.7908	3.6048

① ₩207,932 감소

② ₩272,391 감소

③ ₩39,637 증가

④ ₩53,212 증가

⑤ ₩83,423 증가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이 실질적인지 10% 테스트로 판정한 뒤, 기존 부채 제거이익과 새 부채의 유효이자비용을 합산하여 당기순이익 영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x2년 초 기존 사채의 장부금액은 20x1년 유효이자 95,025원에서 표시이자 80,000원을 차감하여 965,277원이다.
변경 후 현금흐름은 20x2년 말부터 20x5년 말까지 매년 이자 50,000원과 20x5년 말 원금 1,000,000원이다.
조건변경의 실질성 판단에는 기존 유효이자율 10%를, 새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과 이후 이자비용 계산에는 변경 시점 시장이자율 12%를 사용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존 장부금액은 950,252 + 950,252 × 10% − 80,000이다.
변경 현금흐름의 10% 현재가치는 50,000 × 3.1699 + 1,000,000 × 0.6830이다.
10% 테스트 비율은 기존 장부금액-변경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기존 장부금액이다.
새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변경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 12%로 할인하여 구한다. 10% 테스트는 기존 계약과 변경 계약의 현금흐름 차이가 실질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20x2년 초 기존 사채 장부금액은 950,252 + 95,025 − 80,000 = 965,277원이다.
2. 변경 현금흐름을 기존 유효이자율 10%로 할인하면
50,000 × 3.1699 + 1,000,000 × 0.6830 = 841,495원이다. 차이는 123,782원이고,
123,782/965,277 ≈ 12.82%이므로 10%를 초과한다. 따라서 조건변경은 실질적이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 부채를 인식한다.
3. 새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12% 현가계수를 적용한
50,000 × 3.0374 + 1,000,000 × 0.6355 = 787,370원이다. 기존 부채 제거이익은
965,277 − 787,370 = 177,907원이다.
4. 20x2년 유효이자비용은 787,370 × 12% = 94,484.4원이다. 따라서 20x2년 당기순이익은
177,907 − 94,484.4 = 83,422.6원, 즉 83,423원 증가한다.

선지 판단

① X — 당기순이익은 207,932원 감소하지 않는다. 기존 부채 제거이익 177,907원에서 20x2년 유효이자비용 94,484.4원을 차감하므로 올바르게는 83,423원 증가이다.
② X — 당기순이익은 272,391원 감소하지 않는다. 10% 테스트 결과가 12.82%이므로 실질적 조건변경으로 처리하며, 올바르게는 83,423원 증가이다.
③ X —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39,637원이 아니다. 새 부채는 시장이자율 12%로 측정하고 그 장부금액에 12%를 적용한 이자비용을 반영하므로 올바르게는 83,423원 증가이다.
④ X —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53,212원이 아니다. 기존 부채 제거이익 177,907원과 새 부채의 유효이자비용 94,484.4원을 함께 반영하면 올바르게는 83,423원 증가이다.
⑤ O — 계산된 순효과가 83,422.6원이므로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당기순이익은 83,423원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10% 테스트에는 변경 시점 시장이자율 12%가 아니라 기존 유효이자율 10%를 사용한다. 테스트 결과가 10%를 초과하면 단순한 조건변경손익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 부채를 12%로 측정해야 한다. 또한 20x2년 당기순이익에는 제거이익뿐 아니라 새 부채의 1년분 유효이자비용도 반영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변경 직전 기존 부채 장부금액을 구하고, 변경 현금흐름을 기존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10% 테스트를 한다. 10%를 초과하면 기존 부채 제거와 새 부채의 시장이자율 측정을 반영한 뒤, 해당 연도의 새 유효이자비용까지 포함하여 손익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10% 테스트는 기존 유효이자율, 새 부채 측정은 변경 시점 시장이자율이다. 실질적 조건변경의 당기손익은 기존 부채 제거손익과 새 부채 이자비용을 함께 반영한다.

NoteBase

문 13. (주)세무의 20x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고, 유통우선주식수는 5,000주이다.
◯ 우선주(누적적 비참가적, 주당 액면금액 ₩1,000, 배당률 연 10%)는 전환우선주로 우선주 5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이 가능하다.
◯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993,600이다.
◯ 4월 1일 신주인수권 10,000개(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 인수, 행사가격 개당 ₩3,000)를 발행하였다.
◯ 7월 1일 우선주 2,0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 보통주식의 4월 1일 종가는 주당 ₩4,000, 12월 31일 종가는 주당 ₩6,000이고, 당기 평균주가는 주당 ₩5,000이다.
◯ 기중에 전환된 전환우선주에 대해서 우선주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① ₩50
② ₩53
③ ₩57
④ ₩68
⑤ ₩71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한 뒤 신주인수권과 전환우선주의 희석효과를 차례로 검토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반희석적인 잠재적 보통주는 희석주당이익 계산에서 제외한다.

조건 정리

기본주당이익의 분자는 당기순이익 993,600원에서 전환되지 않고 남은 누적적 우선주 3,000주의 연간 배당금 300,000원을 차감한 693,600원이다.
기본주당이익의 분모는 기초 보통주 10,000주와 7월 1일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 400주의 6개월 가중치 200주를 합한 10,200주이다.
신주인수권은 4월 1일 발행되었으므로 9개월의 가중치를 적용하며, 자기주식법에는 기말주가가 아니라 당기평균주가 5,000원을 사용한다.
전환우선주는 증분주당이익을 계산하여 반희석 여부를 판정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본주당이익은 다음과 같다.
693,60010,200=68원
신주인수권의 증분주식수는 자기주식법에 따라 계산한다.
증분주식수=인수 가능 주식수×≤ft(1-행사가격평균주가)×기간가중치
전환우선주는 전환을 가정하여 늘어나는 이익을 늘어나는 보통주식수로 나눈 증분주당이익이 현재의 주당이익보다 낮을 때만 희석적이다.

계산 과정

1. 신주인수권의 증분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10,000×≤ft(1-3,0005,000)×(9)/(12)=3,000주
2. 신주인수권을 반영한 잠정 희석주당이익은 다음과 같다.
693,60010,200+3,000=52.545·s원≈53원
3. 전환우선주를 기초에 전환했다고 가정할 때 추가되는 보통주는, 7월 1일 실제 전환된 2,000주에 대응하는 전반기분 200주와 미전환 3,000주에 대응하는 600주를 합한 800주이다. 분자에 가산할 배당금은 미전환 우선주 배당금 300,000원이므로 증분주당이익은 다음과 같다.
300,000800=375원
375원은 잠정 희석주당이익 52.545원보다 크므로 전환우선주는 반희석적이며 계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희석주당이익은 약 53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50원은 자기주식법에서 당기 평균주가 5,000원 대신 12월 31일 종가 6,000원을 사용하면 나오는 값이다. 올바르게는 평균주가 5,000원을 사용하여 53원으로 계산한다.
② O — 신주인수권의 증분주식수 3,000주만 희석분모에 포함하면 희석주당이익은 52.545…원이며, 이를 반올림하면 53원이다.
③ X — 57원은 당기 평균주가 대신 4월 1일 종가 4,000원을 사용하면 나오는 값이다. 올바르게는 평균주가 5,000원을 적용하여 53원으로 계산한다.
④ X — 68원은 잠재적 보통주를 반영하기 전의 기본주당이익이다. 올바르게는 희석적인 신주인수권을 반영하여 53원으로 계산한다.
⑤ X — 71원은 반희석적인 전환우선주까지 포함하면 나오는 값이다. 올바르게는 전환우선주를 제외하고 희석적인 신주인수권만 포함하여 53원으로 계산한다.

오답 포인트

신주인수권의 자기주식법에서 발행일 주가나 기말주가가 아니라 당기 평균주가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전환우선주라고 해서 무조건 희석분모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증분주당이익을 비교하여 반희석적이면 제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잠재적 보통주를 희석효과가 큰 순서로 반영한다. 신주인수권은 자기주식법과 평균주가를 사용하고, 전환증권은 증분주당이익이 잠정 주당이익보다 낮은 경우에만 포함한다.

암기 포인트

신주인수권은 평균주가·기간가중, 전환증권은 증분주당이익 비교, 반희석 증권은 제외한다.

NoteBase

문 14. (주)세무는 20x1년 초 순자산 장부금액이 ₩1,000,000인 (주)한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를 ₩9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하였다. 건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각각 ₩500,000과 ₩600,000이고, 정액법(잔존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주)한국은 원가에 25%의 이익을 가산하여 (주)세무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x1년 (주)세무가 (주)한국으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50,000이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20x1년도 (주)세무의 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은 ₩250,000이고,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이 ₩120,000이라고 할 때, (주)세무의 20x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지배기업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단, (주)세무는 별도재무제표 상 (주)한국의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① ₩328,000

② ₩330,000

③ ₩338,000

④ ₩346,000

⑤ ₩35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취득일 공정가치 조정에 따른 추가 감가상각비와 상향판매의 미실현이익을 제거한 뒤, 지배기업 지분율을 적용하여 지배기업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지배기업 별도 당기순이익 250,000원,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120,000원, 지배기업 지분율 80%이다.
주의할 조건: 건물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100,000원 높으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추가 감가상각비를 반영한다. 또한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 판매한 상향판매 상품 50,000원이 기말재고에 남아 있으므로 내부이익을 제거한다.

사용할 공식

추가 감가상각비는 $100,000 \div 10 = 10,000$원이다.
기말재고의 미실현이익은 원가에 25%를 가산했으므로 $50,000 \times \frac{25}{125} = 10,000$원이다.
지배기업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의 계산식은
$250,000 + (120,000 - 10,000 - 10,000) \times 80\% = 330,000$원이다.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 지배기업의 별도 당기순이익에는 종속기업 이익이 지분법손익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정된 종속기업 이익 중 지배기업 지분을 더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건물의 공정가치 증가액은 $600,000 - 500,000 = 100,000$원이고, 추가 감가상각비는 $100,000 \div 10 = 10,000$원이다.
2. 판매가는 원가의 125%이므로 기말재고 50,000원에 포함된 내부이익은 $50,000 \times \frac{25}{125} = 10,000$원이다.
3. 조정된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은 $120,000 - 10,000 - 10,000 = 100,000$원이다.
4. 지배기업 귀속분은 $100,000 \times 80\% = 80,000$원이다.
5. 지배기업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250,000 + 80,000 = 33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328,000원은 미실현이익을 $50,000 \times 25\% = 12,500$원으로 잘못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25%는 판매가가 아니라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므로 올바른 미실현이익은 $50,000 \times \frac{25}{125} = 10,000$원이고, 귀속 당기순이익은 330,000원이다.
② O. 추가 감가상각비 10,000원과 상향판매 미실현이익 10,000원을 종속기업 이익에서 차감한 뒤 80%를 적용하면 $250,000 + (120,000 - 10,000 - 10,000) \times 80\% = 330,000$원이다.
③ X. 338,000원은 추가 감가상각비만 차감하고 상향판매 미실현이익을 제거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두 조정액을 모두 차감하여 330,000원으로 계산한다.
④ X. 346,000원은 종속기업의 보고 당기순이익 120,000원에 바로 80%를 적용하여 두 연결조정을 모두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조정된 종속기업 이익 100,000원에 80%를 적용한다.
⑤ X. 350,000원은 250,000원에 조정된 종속기업 이익 100,000원 전액을 더한 연결실체 전체 당기순이익이다. 문제는 지배기업소유주 귀속액을 묻고 있으므로 종속기업 조정이익 중 80,000원만 지배기업소유주에게 귀속되어 정답은 33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원가에 25%를 가산한 거래의 내부이익률을 판매가의 25%로 보는 것과, 상향판매 미실현이익을 비지배지분과 함께 배분하지 않는 것이다. 상향판매의 조정은 종속기업 이익을 줄이므로 추가 감가상각비와 미실현이익을 모두 차감한 100,000원을 80%와 20%로 나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종속기업 보고이익을 공정가치 차이의 추가 상각액과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으로 조정한다. 그다음 판매 방향을 확인하여 상향판매이면 조정된 종속기업 이익에 지배기업 지분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지배기업 별도이익에 더한다.

암기 포인트

원가 가산율 25%의 판매가 기준 이익률은 25/125이고, 상향판매 미실현이익은 종속기업 이익에서 차감한 뒤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NoteBase

문 15.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는다.

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내재가치로 측정한 경우에는 부여일부터 가득일까지 내재가치 변동을 재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가득일 이후의 내재가치 변동은 수정하지 않는다.

④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분상품을 발행하면 부채를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결제방식에 따른 측정과 재측정, 가득 후 처리, 시장조건의 반영 및 거래상대방에게 결제방식 선택권이 있는 경우의 결제 회계처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식결제형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자본 증가를 인식하며, 일단 가득된 지분상품과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은 그 지분상품이 나중에 상실되거나 행사되지 않더라도 환입하지 않는다.
현금결제형은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결제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다시 측정하여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과 지분상품 중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면 현금결제권에 따른 부채요소와 지분상품 결제권에 따른 자본요소가 있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처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현금결제형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X
주식결제형에서 이미 가득된 지분상품이 나중에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가 틀렸으며, 필요한 경우 자본 내 계정 사이에서 대체할 수 있을 뿐이다.

③ X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내재가치로 측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득일까지가 아니라 최종 결제일까지 매 보고기간 말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고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가득일 이후의 내재가치 변동은 수정하지 않는다'가 틀렸다.

④ X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반영한다. 거래상대방이 시장조건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면 시장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따라서 '시장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인식한다'가 틀렸다.

⑤ O
거래상대방에게 결제방식 선택권이 있는 거래에서 결제일에 기업이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분상품을 발행하면, 인식한 부채를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부채·내재가치 측정은 계속 재측정한다'는 원칙을, ②는 '가득 후에는 비용을 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대로 제시한다. ④는 시장조건을 용역 인식의 사후 기준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선지인데, 시장조건은 부여일 공정가치에 반영하는 조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결제형태를 구분한다. 부채로 분류되면 결제일까지 공정가치를 계속 재측정하고, 자본으로 분류되면 가득 후 미행사 등을 이유로 인식액을 환입하지 않는다. 시장조건은 공정가치에 반영하고,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복합금융상품이 지분상품 발행으로 결제되면 부채를 자본으로 직접 대체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부채는 결제일까지 재측정, 자본은 가득 후 환입 없음, 시장조건은 공정가치에 반영, 지분결제 시 부채는 자본으로 직접 대체한다.

NoteBase

문 16.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환사채 상환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지급
◯ 만기상환일 : 20x3년 12월 31일
◯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 : 20x1년 1월 1일 연 10%, 20x2년 1월 1일 연 12%
◯ 상환조건 :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15%를 일시상환
◯ 전환조건 : 사채액면 ₩1,000당 보통주식 1주(주당액면 ₩500)로 전환
◯ 20x2년 1월 1일에 전환사채 중 50%를 동 일자의 공정가치 ₩550,000에 상환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2%	10%	12%
1	0.9091	0.8929	0.9091	0.8929
2	0.8265	0.7972	1.7355	1.6901
3	0.7513	0.7118	2.4869	2.4018

① ₩25,583 감소
② ₩31,413 감소
③ ₩55,830 감소
④ ₩17,944 증가
⑤ ₩25,456 증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할 때 상환대가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부채요소의 장부금액과 상환일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발행일의 부채요소는 일반사채의 당시 유효이자율 10%로 측정한다. 20x2년 1월 1일에는 전환사채의 50%를 상환하므로 이자 25,000원과 만기상환액 575,000원을 사용한다. 상환대가 550,000원 전액을 부채 제거대가로 보지 않고, 상환일의 시장이자율 12%로 계산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만 부채에 배분한다. 나머지는 자본요소의 재취득으로 처리하므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발행일 부채요소 = 이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만기상환액의 현재가치
20x1년 말 부채 장부금액 = 발행일 부채요소 + 유효이자 - 표시이자 지급액
상환이익 = 제거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 - 상환대가 중 부채요소에 배분한 금액

상환대가 중 부채요소에 배분할 금액은 상환일 현재 동일한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 12%로 할인한 공정가치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발행일 부채요소를 계산한다.
50,000×2.4869+1,150,000×0.7513=988,340원

2. 20x1년 말 전체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을 계산한다.
988,340+988,340×10\%-50,000=1,037,174원
상환되는 50%의 장부금액은 518,587원이다.

3. 상환대가 중 부채요소에 배분할 공정가치를 12%로 계산한다.
25,000×1.6901+575,000×0.7972=500,642.5원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500,643원이다.

4. 부채요소의 제거에서 발생하는 상환이익을 계산한다.
518,587-500,643=17,944원
따라서 20x2년도 당기순이익은 17,944원 증가한다.

선지 판단

① X — 계산된 효과는 25,583원 감소가 아니라 17,944원 증가이다.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이 그 제거대가보다 크므로 감소가 아닌 상환이익이 발생한다.
② X — 계산된 효과는 31,413원 감소가 아니라 17,944원 증가이다. 상환대가 550,000원 전액을 부채와 비교해서는 안 되고, 부채요소에 배분된 500,643원만 비교한다.
③ X — 계산된 효과는 55,830원 감소가 아니라 17,944원 증가이다. 자본요소의 재취득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상환대가 전체에서 손실을 계산할 수 없다.
④ O — 제거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 518,587원이 배분된 제거대가 500,643원보다 17,944원 크므로 같은 금액의 상환이익이 발생한다.
⑤ X — 계산된 효과는 25,456원 증가가 아니라 17,944원 증가이다. 상환일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남은 2년의 이자와 만기상환액을 12%로 할인하여 산정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상환대가 550,000원 전액을 부채요소의 장부금액과 비교하는 것이다. 전환사채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이므로, 먼저 상환일의 부채 공정가치를 계산해 상환대가를 배분한다. 자본요소에 배분된 차액은 자본에서 처리하며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문제는 발행일 부채요소 계산 →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환일 장부금액 계산 → 상환일 시장이자율에 따른 부채 공정가치 계산 → 두 금액의 차이를 상환손익으로 인식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일부만 상환하면 현금흐름과 장부금액 모두 해당 비율만 반영한다.

암기 포인트

전환사채 조기상환의 당기손익은 '부채 장부금액 - 상환대가 중 부채 배분액'이며, 자본요소 재취득분은 당기손익이 아니다.

NoteBase

문 17.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20x2년도에 인식할 퇴직급여와 기타포괄손익은?

◯ 20x1년 말 사외적립자산 잔액은 ₩300,000이며, 확정급여채무 잔액은 ₩305,000이다.
◯ 20x2년 초에 현금 ₩18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x2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190,000이다.
◯ 20x2년 말에 사외적립자산 ₩150,000이 퇴직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 20x2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373,000과 ₩375,000이며, 자산인식상한은 ₩1,000이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변동이 없다.

① 퇴직급여: ₩172,500 / 기타포괄손익: 손실 ₩500
② 퇴직급여: ₩172,500 / 기타포괄손익: 손실 ₩1,500
③ 퇴직급여: ₩172,500 / 기타포괄손익: 이익 ₩1,500
④ 퇴직급여: ₩190,500 / 기타포괄손익: 손실 ₩16,500
⑤ 퇴직급여: ₩190,500 / 기타포괄손익: 이익 ₩16,5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에 기초 출연액의 시점을 반영하여 퇴직급여의 순이자를 계산하고, 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와 자산인식상한 효과를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x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는 305,000원 - 300,000원 = 5,000원이다. 20x2년 초에 180,000원을 출연하므로 연중 순확정급여자산은 175,000원이고, 할인율은 연 10%이다. 20x2년 말 실제 확정급여채무는 373,000원, 실제 사외적립자산은 375,000원이므로 상한 적용 전 순확정급여자산은 2,000원이다. 자산인식상한이 1,000원이므로 재무상태표에는 순확정급여자산 1,000원만 인식한다.

사용할 공식

퇴직급여 = 당기근무원가 - 순확정급여자산의 순이자수익이다.
기타포괄손익의 재측정손익 =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익 + 순이자를 제외한 사외적립자산 수익의 차이 + 순이자를 제외한 자산인식상한 효과의 변동이다.
기초 출연은 회계연도 초에 이루어졌으므로 출연 후 순확정급여자산에 연 10%를 적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출연 후 순확정급여자산은 180,000원-5,000원=175,000원이고, 순이자수익은 175,000원×10\%=17,500원이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190,000원-17,500원=172,500원이다.
2. 재측정 전 확정급여채무는 305,000원+30,500원+190,000원-150,000원=375,500원이다. 실제 채무가 373,000원이므로 보험수리적이익은 2,500원이다.
3. 재측정 전 사외적립자산은 300,000원+180,000원+48,000원-150,000원=378,000원이다. 실제 공정가치가 375,000원이므로 순이자를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은 3,000원이다. 두 재측정요소를 합하면 500원 손실이다.
4. 상한 적용 전 순확정급여자산 2,000원 중 1,000원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자산인식상한 효과로 1,000원 손실이 추가된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은 총 1,500원 손실이다.

선지 판단

① X. 퇴직급여 172,500원은 맞지만 기타포괄손익 손실은 500원이 아니라 1,500원이다. 500원은 채무의 보험수리적이익 2,500원과 사외적립자산 손실 3,000원만 상계하고 자산인식상한 효과 1,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퇴직급여 172,500원 / 기타포괄손익 손실 1,500원'이다.
② O. 기초 출연액을 반영한 순이자수익 17,500원을 당기근무원가에서 차감하면 퇴직급여는 172,500원이고, 재측정손실 500원에 자산인식상한 효과 1,000원을 더하면 기타포괄손익은 1,500원 손실이다.
③ X. 기타포괄손익 1,500원의 금액은 맞지만 방향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다. 올바르게는 '퇴직급여 172,500원 / 기타포괄손익 손실 1,500원'이다.
④ X. 퇴직급여 190,500원은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5,000원에만 10%를 적용하여 순이자비용 500원을 더한 값으로, 연초 출연액의 효과를 누락하였다. 또한 기타포괄손익도 16,500원 손실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퇴직급여 172,500원 / 기타포괄손익 손실 1,500원'이다.
⑤ X. 연초 출연액을 반영하면 순이자비용 500원이 아니라 순이자수익 17,500원이 발생하므로 퇴직급여는 190,500원이 아니라 172,500원이다. 기타포괄손익도 16,500원 이익이 아니라 1,500원 손실이다. 올바르게는 '퇴직급여 172,500원 / 기타포괄손익 손실 1,5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자산인식상한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순확정급여자산 1,000원을 빠뜨리게 만든 선지이다. ④와 ⑤의 퇴직급여 190,500원은 연초 출연액을 순이자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출연 시점과 자산인식상한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구하고, 기중 출연액과 급여 지급액의 시점을 반영하여 순이자를 계산한다. 그다음 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기말 잔액으로 재측정손익을 구한 뒤, 마지막에 자산인식상한 효과를 별도로 더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연초 출연은 순이자에 1년분을 반영하고, 순확정급여자산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재측정손실에 포함한다.

NoteBase

문 18. 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 세무상 가산될 금액을 말한다.

② 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③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④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법인세회계에서 자산의 세무기준액, 당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 인식 예외와 측정 원칙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이다. 당기법인세를 초과 납부한 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감액한다.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생기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세무상 가산될 금액'이다.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이다.

② O
과거기간에 납부한 법인세가 그 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업이 환급받거나 이후 세액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그 초과액을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③ O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에 해당한다.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생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 영업권 장부금액이 다시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④ O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만 인식한다. 그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회수하기 어려운 부분만큼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⑤ O
일시적차이의 소멸 시기를 신뢰성 있게 상세히 예정하기 어렵고 일관된 측정이 필요하므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①은 자산 회수 시 세무조정이라는 점을 이용해 '가산'과 '차감'을 바꾸어 놓았다. 세무기준액은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앞으로 세무상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회수 시 과세대상 효익에서 세무상 차감할 금액'으로 판단한다. 이어서 초과 납부세액은 자산, 영업권 최초 인식은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예외, 이연법인세자산은 회수 가능성에 따라 감액, 이연법인세는 무할인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자산 세무기준액은 차감액, 초과 납부세액은 자산, 영업권 최초 인식은 부채 인식 예외, 이연법인세는 무할인이다.

NoteBase

문 19. (주)세무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1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세무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 법인세비용 ₩50,000
◯ 대손상각비 ₩20,000
◯ 감가상각비 ₩25,000
◯ 사채이자비용 ₩40,000(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0,000 포함)
◯ 토지처분이익 ₩30,000
◯ 미지급이자 감소액 ₩10,000
◯ 매출채권(순액) 증가액 ₩15,000
◯ 법인세부채 증가액 ₩5,000
◯ (주)세무는 간접법을 사용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

① ₩105,000
② ₩115,000
③ ₩125,000
④ ₩135,000
⑤ ₩145,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간접법의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당기순이익에 비현금손익과 영업자산·부채의 변동을 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 100,000원
구해야 할 값: 당기순이익
주의할 조건: 매출채권이 순액으로 제시되었으므로 대손상각비 20,000원을 별도로 더하지 않는다.
사채이자비용 중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0,000원은 비현금비용이므로 더하고, 미지급이자 감소액 10,000원은 뺀다.

사용할 공식

영업활동순현금흐름=당기순이익+비현금비용-비영업이익±영업자산·부채 변동
간접법은 발생주의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현금주의의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바꾸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감가상각비 25,000원과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0,000원은 비현금비용이므로 더한다.
2. 토지처분이익 30,000원은 투자활동 관련 이익이므로 뺀다.
3. 미지급이자 감소액 10,000원과 매출채권(순액) 증가액 15,000원은 뺀다. 법인세부채 증가액 5,000원은 더한다.
4. 따라서 100,000=당기순이익+25,000+10,000-30,000-10,000-15,000+5,000=당기순이익-15,000 이고, 당기순이익은 115,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05,000원은 계산 결과 115,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115,000원이다.
② O —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 100,000원은 당기순이익에서 순액 15,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당기순이익은 115,000원이다.
③ X — 125,0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115,000원이다.
④ X — 135,0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115,000원이다.
⑤ X — 145,0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11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매출채권이 '순액'으로 주어졌는데도 대손상각비 20,000원을 다시 더하는 것이다. 순액 매출채권의 변동에는 대손상각비의 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 가산하면 중복 조정이 된다. 또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가산 10,000원과 미지급이자 감소액 차감 10,000원은 서로 상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간접법 역산 문제에서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 조정식을 먼저 세우고, 비현금비용은 가산, 처분이익은 차감, 영업자산 증가는 차감, 영업부채 증가는 가산으로 처리한다. 계정이 순액으로 제시되었는지도 확인하여 중복 조정을 막는다.

암기 포인트

자산 증가는 빼고 부채 증가는 더한다. 순액 계정에 반영된 비용은 다시 조정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② 우발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충당부채의 측정·사용·표시 원칙과 우발부채의 공시 기준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한다.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한 주석으로 공시한다. 충당부채는 당초 인식한 목적에 해당하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현재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주는 미래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충당부채 측정에 반영한다.
② O — 우발부채는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따라서 '희박하지 않다면 공시한다'는 표현은 옳다.
③ O — 제삼자의 변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충당부채 관련 비용을 인식한 변제 금액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X — 틀린 부분은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이다. 충당부채는 당초 인식한 목적에 해당하는 지출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지출과 상계하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숨겨진다. 올바르게는 '당초에 인식한 목적에 해당하는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다'이다.
⑤ O —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측정한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를 반영하여 매 기간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며, 그 증가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상계'와 ④의 '다른 지출에 사용'을 같은 의미로 혼동하기 쉽다. ③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충당부채 관련 비용과 인식된 변제액을 순액 표시하는 문제이고, ④는 이미 설정한 충당부채를 어떤 지출에 사용하는지의 문제이다. 순액 표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충당부채의 목적 외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공시·표시·사용을 구분한다. 우발부채는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면 주석 공시하고, 충당부채 관련 비용은 인식한 변제액과 순액 표시할 수 있으며, 충당부채 자체는 당초 설정 목적의 지출에만 사용한다.

암기 포인트

우발부채는 '희박하지 않으면 공시', 변제액은 '비용과 순액 표시 가능', 충당부채는 '당초 목적에만 사용'이다.

NoteBase

문 21. (주)세무의 20x1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다.
◯ 20x1년 10월 말에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이 발생하였다.
◯ 20x1년 말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세법상 부인액은 ₩30,000,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50,000이다.
◯ 20x1년 초에 ₩3,000,000에 취득한 토지의 20x1년 말 현재 공정가치는 ₩3,100,000이다. (주)세무는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
◯ 법인세율은 20%로 매년 일정하며, 전기이월 일시적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① ₩190,000
② ₩194,000
③ ₩210,000
④ ₩220,000
⑤ ₩234,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과세소득으로 당기법인세를 계산한 뒤, 관련 거래가 인식된 곳에 맞추어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자본·기타포괄손익에 배분하고 당기손익에 표시할 법인세비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고 세율은 20%이다.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은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항목이다.
재고자산평가손실 부인액 ₩30,000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50,000은 영구적차이이다.
토지 재평가이익 ₩100,000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항목이다.

사용할 공식

당기법인세부채=과세소득×세율
당기손익 법인세비용=당기손익 귀속 당기법인세+당기손익 귀속 이연법인세
법인세효과는 원인이 된 거래가 당기손익 밖에서 인식되면 그 세금도 같은 곳에 인식하므로, 자본과 기타포괄손익에 귀속되는 세액을 당기손익 법인세비용에서 제외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과세소득은 ₩1,000,000 + ₩20,000 + ₩30,000 + ₩50,000 = ₩1,100,000이다. 따라서 당기법인세부채는 ₩1,100,000 × 20% = ₩220,000이다.
2.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세금 ₩20,000 × 20% = ₩4,000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따라서 당기손익에 귀속되는 당기법인세는 ₩220,000 - ₩4,000 = ₩216,000이다.
3. 재고자산평가손실 부인액에서 생긴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 ₩30,000 × 20% = ₩6,000을 인식한다. 이는 당기손익의 법인세비용을 ₩6,000 감소시킨다.
4. 토지 재평가로 생긴 과세할 일시적차이 ₩100,000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20,000은 재평가이익과 함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므로 당기손익 법인세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5. 당기손익의 법인세비용은 ₩216,000 - ₩6,000 = ₩210,000이다. 같은 결과를 세율조정 방식으로 보면 기본세액 ₩1,000,000 × 20% = ₩200,000에 영구적차이인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세금 ₩10,000만 더하여 ₩210,000이 된다.

선지 판단

① X — ₩190,000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세금효과 ₩10,000을 차감하는 것으로 잘못 처리한 금액이다.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영구적차이이므로 법인세비용을 ₩10,000 증가시켜야 하며, 올바른 금액은 ₩210,000이다.
② X — ₩194,000은 재고자산평가손실 부인액의 이연법인세자산 ₩6,000만 기본세액에서 차감하고, 같은 일시적차이가 당기법인세를 ₩6,000 늘리는 효과와 접대비 영구적차이의 세금 ₩10,000을 누락한 금액이다. 올바른 금액은 ₩210,000이다.
③ O — 당기손익 귀속 당기법인세 ₩216,000에서 재고자산 관련 이연법인세수익 ₩6,000을 차감하면 법인세비용은 ₩210,000이다.
④ X — ₩220,000은 전체 당기법인세부채일 뿐 당기손익에 표시할 법인세비용이 아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 관련 ₩4,000은 자본에 배분하고 재고자산 관련 이연법인세수익 ₩6,000을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210,000이다.
⑤ X — ₩234,000은 당기법인세부채 ₩220,000에 토지 재평가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20,000을 더하고 재고자산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6,000을 차감한 금액이다. 토지 관련 ₩20,000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자기주식 관련 ₩4,000은 자본에 배분해야 하므로, 당기손익 법인세비용은 ₩210,000이다.

오답 포인트

당기법인세부채 ₩220,000을 곧바로 법인세비용으로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세금효과는 자본에, 토지 재평가의 세금효과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또한 재고자산평가손실 부인액은 일시적차이이므로 당기법인세 증가와 이연법인세수익이 함께 생기지만,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영구적차이이므로 당기손익 법인세비용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과세소득과 당기법인세부채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각 세금효과의 원인이 당기손익·자본·기타포괄손익 중 어디에 인식되었는지 확인하여 같은 곳에 배분한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를 반영하고, 영구적차이는 세율조정 항목으로 당기손익 법인세비용에 남긴다.

암기 포인트

세금도 원래 거래를 따라간다. 자본 거래의 세금은 자본, 재평가의 세금은 기타포괄손익, 영구적차이의 세금효과는 당기손익 법인세비용에 반영된다.

NoteBase

문 22. 자본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분상품의 상환이나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하지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② 확정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우선주는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에서 차감하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④ 액면주식을 액면발행한 경우, 발생한 주식발행 직접원가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차변에 기록된다.

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과 금융부채로 구분하는 기준, 자기지분상품 거래의 회계처리, 지분거래 직접원가의 처리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분상품은 기업의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 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이다.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면 원칙적으로 금융부채이며,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고 현금상환의무가 없다면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자기지분상품의 거래와 지분거래의 직접원가는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에 직접 반영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분상품의 상환이나 차환은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이므로 자본의 변동으로 처리한다. 또한 지분상품 자체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② O. 현금상환의무 없이 확정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우선주는 발행자의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O. 기업이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그 자기지분상품의 매입·매도·발행·소각에서 생기는 대가는 자본에 직접 반영하므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④ O. 지분상품 발행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한다. 액면발행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이 없으므로 해당 직접원가를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차변으로 기록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이다. 보유자가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면 발행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생기므로, 별도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우선주라는 법적 명칭만 보고 모두 지분상품으로 판단하기 쉽다. ②는 확정수량의 보통주 전환이므로 지분상품이지만, ⑤는 보유자가 현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발행자에게 상환의무가 생긴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발행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러한 의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융부채이고, 현금상환의무 없이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면 지분상품이다. 자기지분상품 거래와 지분거래 직접원가는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에 직접 반영한다.

암기 포인트

현금상환의무는 금융부채, 확정수량 자기주식 결제는 지분, 자기주식 거래손익과 지분발행 직접원가는 자본에 직접 반영한다.

NoteBase

문 23. (주)세무의 리스거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리스 회계처리가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리스기간 : 20 × 1. 1. 1. ~ 20 × 4. 12. 31.
◯ 고정리스료 : 리스기간 매년 말 ₩100,000 지급
◯ 리스계약 체결시점의 내재이자율은 연 8%이며, 리스기간 종료시 추정 잔존가치는 ₩5,000이고, 보증잔존가치는 없다.
◯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0x1년 말 현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각각 ₩248,408과 ₩257,707이다.
◯ 20x2년 1월 1일 (주)세무는 잔여 리스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리스계약 조건변경에 합의하였다. 변경된 계약은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리스계약 변경시점의 새로운 내재이자율은 연 10%이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8%	10%
1	0.9259	0.9091	0.9259	0.9091
2	0.8573	0.8265	1.7833	1.7355
3	0.7938	0.7513	2.5771	2.4869
4	0.7350	0.6830	3.3121	3.1699

① ₩62,730 감소
② ₩74,389 감소
③ ₩97,770 감소
④ ₩101,194 감소
⑤ ₩116,357 감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리스기간 단축에 따른 범위 축소 손실, 변경 후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재측정한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당기순이익 감소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변경 직전 사용권자산은 248,408원, 리스부채는 257,707원이다. 잔여 리스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되므로 사용권자산의 3분의 1을 제거한다. 변경 후 2년간 매년 말 100,000원을 지급하며 새로운 할인율은 10%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존 할인율로 계산한 변경 후 리스부채 = 연간 리스료 × 2년·8% 정상연금현가계수
재측정 리스부채 = 연간 리스료 × 2년·10% 정상연금현가계수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 = 범위 축소 손실 + 감가상각비 + 이자비용

리스기간 단축은 사용권의 범위가 감소하는 변경이므로 먼저 소멸한 사용권과 관련된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제거하고 손익을 인식한 뒤, 변경일의 할인율로 리스부채를 재측정한다.

계산 과정

1. 단축 후 지급할 2회 리스료를 기존 8%로 할인한 리스부채는 $100{,}000 \times 1.7833 = 178{,}330$원이다. 따라서 범위 축소로 제거할 리스부채는 $257{,}707 - 178{,}330 = 79{,}377$원이다.
2. 제거할 사용권자산은 $248{,}408 \times \frac{1}{3} = 82{,}803$원이다. 자산 제거액이 부채 제거액보다 3,426원 크므로 범위 축소 손실은 $82{,}803 - 79{,}377 = 3{,}426$원이다.
3. 변경일의 10%로 재측정한 리스부채는 $100{,}000 \times 1.7355 = 173{,}550$원이다. 기존 8% 기준 변경 후 부채 178,330원보다 4,780원 감소하므로 사용권자산도 4,780원 줄인다.
4. 변경 후 사용권자산은 $248{,}408 - 82{,}803 - 4{,}780 = 160{,}825$원이고, 남은 2년에 걸친 20×2년 감가상각비는 $160{,}825 \div 2 = 80{,}413$원이다.
5. 20×2년 이자비용은 $173{,}550 \times 10\% = 17{,}355$원이다.
6.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3{,}426 + 80{,}413 + 17{,}355 = 101{,}194$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62,730원 감소는 범위 축소 손실 3,426원, 감가상각비 80,413원, 이자비용 17,355원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62,730원 감소’는 ‘101,194원 감소’로 고쳐야 한다.
② X. 74,389원 감소는 세 비용·손실을 모두 반영한 101,194원이 아니다. ‘74,389원 감소’는 ‘101,194원 감소’로 고쳐야 한다.
③ X. 97,770원 감소는 범위 축소 때 발생한 손실 3,426원을 누락한 값이다. ‘97,770원 감소’는 ‘101,194원 감소’로 고쳐야 한다.
④ O. 범위 축소 손실 3,426원, 감가상각비 80,413원, 이자비용 17,355원을 합하면 당기순이익이 101,194원 감소한다.
⑤ X. 116,357원 감소는 계산된 세 비용·손실의 합계보다 15,163원 크다. ‘116,357원 감소’는 ‘101,194원 감소’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만 합한 97,768원을 반올림·계산 오차로 97,770원처럼 본 경우에 가까우며, 변경일에 사용권자산 제거액이 리스부채 제거액보다 커서 생기는 범위 축소 손실 3,426원을 빠뜨린 선택지이다. 또한 리스부채 재측정에는 기존 8%가 아니라 변경일의 10%를 적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스 범위가 줄어드는 조건변경은 '범위 축소분 제거 및 손익 인식 → 변경일 할인율로 리스부채 재측정 → 조정된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재측정 부채의 이자비용 계산'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리스기간 단축은 범위 축소이다. 먼저 제거손익을 인식하고, 새 할인율로 부채를 재측정한 뒤 남은 자산을 상각한다.

NoteBase

문 24. (주)세무는 20x2년도 장부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였다. (주)세무의 20x2년도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500,000일 때,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 20x1년 기말재고자산을 ₩10,000 과대평가하였으며, 20x2년 기말재고자산 을 ₩5,000 과소평가하였다.
◯ 20x1년 미지급이자를 ₩7,000 과소계상하였으며, 20x2년 미지급이자를 ₩3,000 과소계상하였다.
◯ 20x2년 초에 취득한 투자주식(지분율 30%)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원가법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20x2년 중에 ₩6,000의 중간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피투자회사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은 ₩400,000이다.

① ₩595,000
② ₩601,000
③ ₩603,000
④ ₩633,000
⑤ ₩639,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기와 당기의 재고자산·미지급이자 오류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방향을 구분하고, 원가법으로 인식한 배당수익을 지분법손익으로 바꾸어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오류수정 전 20x2년도 당기순이익은 ₩500,000이다.
20x1년 기말재고자산 ₩10,000 과대평가는 20x2년 기초재고자산 과대평가로 이어진다. 20x2년 기말재고자산은 ₩5,000 과소평가되어 있다.
20x1년 미지급이자는 ₩7,000, 20x2년 미지급이자는 ₩3,000 각각 과소계상되어 있다.
투자주식의 지분율은 30%이고,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400,000이며, 원가법으로 이미 중간배당금 ₩6,000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기초재고자산+당기매입액-기말재고자산
이자비용=현금지급액+기말 미지급이자-기초 미지급이자
지분법손익=피투자회사 당기순이익×지분율
재고자산과 미지급이자는 매출원가·이자비용의 변화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수정한다. 지분법 적용 시 배당금은 수익이 아니라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감소이므로, 이미 인식한 배당수익을 제거하고 지분법손익을 인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재고자산 오류를 수정한다. 20x2년 기초재고자산을 ₩10,000 줄이면 매출원가가 ₩10,000 감소하고, 20x2년 기말재고자산을 ₩5,000 늘리면 매출원가가 ₩5,000 감소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합계 ₩15,000 증가한다.
2. 미지급이자 오류를 수정한다. 기말 미지급이자 수정액 ₩3,000은 이자비용을 늘리지만, 기초 미지급이자 수정액 ₩7,000은 당기 이자비용을 줄인다. 이자비용의 순변동은 ₩3,000 - ₩7,000 = -₩4,000이므로 당기순이익은 ₩4,000 증가한다.
3. 지분법 오류를 수정한다. 인식해야 할 지분법이익은 ₩400,000 × 30% = ₩120,000이다. 원가법으로 이미 인식한 배당수익 ₩6,000은 제거해야 하므로 당기순이익의 순증가액은 ₩120,000 - ₩6,000 = ₩114,000이다.
4.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500,000 + ₩15,000 + ₩4,000 + ₩114,000 = ₩633,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595,000은 재고자산 수정액과 미지급이자 수정액의 방향을 모두 반대로 적용하여 ₩500,000 - ₩15,000 - ₩4,000 + ₩114,000으로 계산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두 수정액을 모두 더하여 ₩633,000으로 계산한다.
② X — ₩601,000은 재고자산과 미지급이자의 방향을 반대로 적용한 데 더해, 지분법 수정액에서 이미 인식한 배당수익 ₩6,000을 제거하지 않고 ₩120,000 전액을 더한 값이다. 올바른 지분법 관련 순수정액은 ₩114,000이고 최종 당기순이익은 ₩633,000이다.
③ X — ₩603,000은 미지급이자와 지분법 수정은 맞게 처리했지만 재고자산 수정액 ₩15,000의 방향을 반대로 적용한 값이다. 재고자산 오류 수정은 당기순이익을 ₩15,000 증가시키므로 올바른 금액은 ₩633,000이다.
④ O — 세 오류의 당기순이익 수정액 ₩15,000, ₩4,000, ₩114,000을 모두 더하면 ₩633,000이 된다.
⑤ X — ₩639,000은 지분법이익 ₩120,000을 인식하면서 원가법으로 이미 인식한 배당수익 ₩6,000을 제거하지 않은 값이다. 배당수익을 제거한 순수정액은 ₩114,000이므로 올바른 금액은 ₩633,000이다.

오답 포인트

재고자산 오류는 기초와 기말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점이 핵심이다. 기초재고자산 감소와 기말재고자산 증가는 모두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 미지급이자도 기말잔액 수정액에서 기초잔액 수정액을 빼야 한다. 또한 지분법에서는 배당금이 수익이 아니므로, 원가법에서 이미 인식한 ₩6,000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오류수정 문제는 각 오류마다 ① 당기 비용 또는 수익에 미치는 방향, ② 전기 오류가 기초잔액을 통해 당기에 미치는 반대 효과, ③ 기존 회계처리에서 이미 당기손익에 반영된 금액을 차례로 확인한다. 각 항목의 당기순이익 수정액만 구한 뒤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에 합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초재고는 매출원가와 같은 방향, 기말재고는 매출원가와 반대 방향이다. 미지급비용은 기말 증가분에서 기초 증가분을 빼고, 지분법에서는 순이익 지분은 수익이지만 배당은 투자주식의 회수이다.

NoteBase

문 25.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며, 20x1년 재고자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할 때, 20x1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기초	기말
직접재료	₩20,000	₩30,000
재공품	25,000	38,000
제품	44,000	32,000

◯ 당기의 직접재료 매입액은 ₩90,000이다.
◯ 당기의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은 ₩140,000이다.
◯ 직접노무시간당 직접노무원가는 ₩40이다.
◯ 당기의 매출액은 ₩30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① ₩6.0
② ₩6.6
③ ₩7.0
④ ₩7.4
⑤ ₩7.8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매출총이익률에서 매출원가를 역산한 뒤 제품·재공품·직접재료 재고의 원가 흐름을 차례로 연결하여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매출액은 300,000원이고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기초·기말 제품은 각각 44,000원과 32,000원, 기초·기말 재공품은 각각 25,000원과 38,000원, 기초·기말 직접재료는 각각 20,000원과 30,000원이다. 당기 직접재료 매입액은 90,000원, 직접노무원가는 140,000원이며 직접노무시간당 직접노무원가는 4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직접노무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매출액×(1-매출총이익률)
당기제품제조원가=매출원가-기초제품+기말제품
당기총제조원가=당기제품제조원가-기초재공품+기말재공품
직접재료사용액=기초직접재료+당기매입액-기말직접재료
배부대상 제조간접원가=당기총제조원가-직접재료사용액-직접노무원가
예정배부율=배부대상 제조간접원가직접노무시간
제품원가의 흐름은 직접재료에서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매출원가부터 거꾸로 추적하면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를 구할 수 있고, 이를 배부기준인 직접노무시간으로 나누면 예정배부율이 된다.

계산 과정

1. 매출원가는 300,000원 × 80% = 240,000원이다.
2. 당기제품제조원가는 240,000원 - 44,000원 + 32,000원 = 228,000원이다.
3. 당기총제조원가는 228,000원 - 25,000원 + 38,000원 = 241,000원이다.
4. 직접재료사용액은 20,000원 + 90,000원 - 30,000원 = 80,000원이다.
5.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는 241,000원 - 80,000원 - 140,000원 = 21,000원이다.
6. 직접노무시간은 140,000원 ÷ 40원/시간 = 3,500 시간이다.
7.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21,000원 ÷ 3,500 시간 = 직접노무시간당 6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된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시간당 ₩6.0이므로 옳다.
② X — ₩6.6을 적용하면 배부액이 23,100원이 되어 역산한 제조간접원가 21,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6.6 → 올바른 값은 ₩6.0이다.
③ X — ₩7.0을 적용하면 배부액이 24,500원이 되어 21,000원을 초과한다. 틀린 값 ₩7.0 → 올바른 값은 ₩6.0이다.
④ X — ₩7.4를 적용하면 배부액이 25,900원이 되어 21,000원을 초과한다. 틀린 값 ₩7.4 → 올바른 값은 ₩6.0이다.
⑤ X — ₩7.8을 적용하면 배부액이 27,300원이 되어 21,000원을 초과한다. 틀린 값 ₩7.8 → 올바른 값은 ₩6.0이다.

오답 포인트

매출총이익률 20%를 매출원가율로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매출원가율은 80%이다. 또한 제품과 재공품 원가를 역산할 때에는 기초재고를 빼고 기말재고를 더하며, 직접재료사용액은 반대로 기초재고와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다. 이 부호 차이가 오답률을 만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출액 → 매출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제조간접원가의 순서로 역산한 뒤, 직접노무원가를 시간당 임금으로 나누어 직접노무시간을 구하고 제조간접원가를 그 시간으로 나눈다.

암기 포인트

재고 흐름은 '기초 + 당기투입 - 기말 = 당기산출'이며, 예정배부율은 '배부할 제조간접원가 ÷ 예정배부기준량'이다.

NoteBase

문 26.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20x1년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각각 ₩540,000과 ₩625,000이다. 20x1년 기준조업도는 1,000직접노무시간이며, 실제직접노무시간은 900시간이다. 제조간접원가의 조업도차이가 ₩110,000(불리)이라면 제조간접원가의 능률차이는?

① ₩20,820(불리)

② ₩41,040(불리)

③ ₩62,680(불리)

④ ₩86,680(불리)

⑤ ₩95,040(불리)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로 표준허용직접노무시간을 역산한 뒤,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을 적용하여 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 ₩54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625,000
기준조업도: 1,000직접노무시간
실제직접노무시간: 900시간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110,000(불리)
구해야 할 값: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NoteBase

사용할 공식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기준조업도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기준조업도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기준조업도-표준허용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실제시간-표준허용시간)
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의 기준조업도와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먼저 표준허용시간을 역산한다. 능률차이는 실제시간과 표준허용시간의 차이에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을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540,000 ÷ 1,000시간 = 540원/시간이다.
2.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625,000 ÷ 1,000시간 = 625원/시간이다.
3. 조업도차이가 불리하므로 표준허용시간이 기준조업도보다 작다. 따라서 110,000=625×(1,000-표준허용시간)이고, 표준허용시간은 824시간이다.
4. 실제시간 900시간이 표준허용시간 824시간보다 76시간 많으므로 능률차이는 불리하다.
5.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540 \times (900 - 824) = 41{,}040$이므로 ₩41,040(불리)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820(불리)는 계산된 능률차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20,820 → 올바른 금액은 ₩41,040(불리)이다.
② O — 실제시간과 표준허용시간의 차이 76시간에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540원/시간을 곱하면 ₩41,040이며, 실제시간이 더 많으므로 불리하다.
③ X — ₩62,680(불리)는 계산된 능률차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62,680 → 올바른 금액은 ₩41,040(불리)이다.
④ X — ₩86,680(불리)는 계산된 능률차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86,680 → 올바른 금액은 ₩41,040(불리)이다.
⑤ X — ₩95,040(불리)는 계산된 능률차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95,040 → 올바른 금액은 ₩41,040(불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능률차이에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625원/시간을 곱하면 안 된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에는 고정 배부율을 사용하지만, 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실제시간과 표준허용시간의 차이에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540원/시간을 곱한다. 또한 ₩110,000(불리)은 표준허용시간이 기준조업도보다 부족하다는 뜻이므로 1,000시간에서 176시간을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변동·고정 제조간접원가의 표준배부율을 각각 구한다. 다음으로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에서 표준허용시간을 역산하고, 마지막으로 실제시간과 표준허용시간의 차이에 변동 배부율을 곱하여 능률차이의 금액과 유리·불리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조업도차이에는 고정 배부율, 능률차이에는 변동 배부율을 적용한다. 실제시간이 표준허용시간보다 크면 능률차이는 불리하다.

NoteBase

문 27. (주)세무는 단일 공정을 통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평균법으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x1년 당기착수량은 1,250개이며, 당기완성량은 1,210개, 기초재공품 수량은 250개(가공원가 완성도 80%), 기말재공품 수량은 50개(가공원가 완성도 60%)이다. 품질검사는 가공원가 완성도 40%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정상공손허용률은 10%이며, 검사시점 통과기준과 도달기준을 각각 적용하였을 때 두 방법간의 비정상공손수량의 차이는 몇 개인가?

① 20개

② 22개

③ 24개

④ 26개

⑤ 28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실제 공손수량을 구한 뒤, 검사시점 통과기준과 도달기준에서 인정되는 정상공손수량을 각각 계산하여 비정상공손수량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량 흐름은 기초재공품 250개와 당기착수량 1,250개가 투입되고, 완성품 1,210개와 기말재공품 50개가 남은 구조이다. 따라서 실제 공손은 240개이다.
품질검사는 가공원가 완성도 40%에서 이루어지고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60%이므로, 기말재공품 50개도 검사시점을 통과하였다.
정상공손허용률은 10%이다.

사용할 공식

실제 공손수량=기초재공품+당기착수량-완성품-기말재공품
비정상공손수량=실제 공손수량-정상공손수량
검사시점 통과기준은 검사시점을 통과한 양품을 기준으로 정상공손을 계산하고, 도달기준은 검사시점에 도달한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정상공손을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실제 공손수량은 250개 + 1,250개 - 1,210개 - 50개 = 240개이다.
2. 검사시점 통과기준의 기준수량은 완성품 1,210개 + 검사시점을 통과한 기말재공품 50개 = 1,260개이다.
정상공손은 1,260개 × 10% = 126개이고, 비정상공손은 240개 - 126개 = 114개이다.
3. 도달기준의 검사시점 도달수량은 완성품 1,210개 + 기말재공품 50개 + 실제 공손 240개 = 1,500개이다.
정상공손은 1,500개 × 10% = 150개이고, 비정상공손은 240개 - 150개 = 90개이다.
4. 두 방법의 비정상공손수량 차이는 114개 - 90개 = 24개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개는 계산된 차이 24개와 일치하지 않는다. 20개가 아니라 24개이다.
② X — 22개는 검사시점 통과기준의 비정상공손 114개와 도달기준의 비정상공손 90개의 차이가 아니다. 22개가 아니라 24개이다.
③ O — 114개와 90개의 차이가 24개이므로 옳다.
④ X — 26개는 두 비정상공손수량의 차이보다 2개 크다. 26개가 아니라 24개이다.
⑤ X — 28개는 두 비정상공손수량의 차이보다 4개 크다. 28개가 아니라 24개이다.

오답 포인트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 60%가 검사시점 40%를 넘으므로 기말재공품 50개를 검사시점 통과수량에서 빼면 안 된다. 또한 도달기준에서는 실제 공손 240개도 검사시점에 도달한 수량에 포함한다. 두 기준의 정상공손 차이가 곧 비정상공손 차이의 절댓값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량 흐름으로 실제 공손을 구하고, 기말재공품이 검사시점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한다. 그다음 통과기준은 검사시점을 지난 양품, 도달기준은 검사시점에 도달한 전체 수량에 정상공손허용률을 적용하고 각각 실제 공손에서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통과기준은 양품 기준, 도달기준은 공손을 포함한 도달수량 기준이다.

NoteBase

문 28.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설립되었다. 20x1년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3,200개와 2,900개이다. 동 기간동안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58,400 발생하였고, 고정판매관리비는 ₩250,000 발생하였다. 전부원가계산을 적용하였을 때 기말제품의 단위당 제품원가는 ₩800이다. 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하였을 때 기말제품재고액은? (단, 재공품은 없다.)

① ₩192,600

② ₩198,000

③ ₩206,400

④ ₩224,000

⑤ ₩232,8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전부원가계산의 단위당 제품원가에서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외하여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를 구한 뒤, 이를 기말제품 수량에 곱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량은 3,200개, 판매량은 2,900개이므로 기말제품은 300개이다.
전부원가계산의 단위당 제품원가는 ₩800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58,400이다.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기간원가로 처리한다. 고정판매관리비 ₩250,000도 기말제품재고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V = A - F/Q$
$E = (Q - S) \times V$

여기서 V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A는 전부원가계산의 단위당 제품원가, F는 고정제조간접원가, Q는 생산량, S는 판매량, E는 변동원가계산의 기말제품재고액이다. 전부원가계산의 제품원가에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포함되므로 F/Q를 차감한다.

계산 과정

1. 기말제품 수량 = 3,200개 - 2,900개 = 300개이다.
2.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358,400 ÷ 3,200개 = ₩112이다.
3.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800 - ₩112 = ₩688이다.
4. 변동원가계산의 기말제품재고액 = 300개 × ₩688 = ₩206,4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192,600은 계산된 기말제품재고액 ₩206,400과 다르다. 틀린 금액 ₩192,600은 ₩206,4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198,000은 계산된 기말제품재고액 ₩206,400과 다르다. 틀린 금액 ₩198,000은 ₩206,400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기말제품 300개에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688을 곱하면 ₩206,400이므로 옳다.
④ X — ₩224,000은 계산된 기말제품재고액 ₩206,400과 다르다. 틀린 금액 ₩224,000은 ₩206,400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232,800은 계산된 기말제품재고액 ₩206,400과 다르다. 틀린 금액 ₩232,800은 ₩206,40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전부원가계산의 단위당 제품원가 ₩800을 그대로 변동원가계산의 재고단가로 사용하면 안 된다. ₩800에는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112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제외해야 한다. 또한 고정판매관리비는 제품원가가 아니라 기간원가이므로 재고액 계산에 넣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부원가계산의 단위당 제품원가가 주어지면 생산량을 기준으로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구해 차감한다. 그 결과인 단위당 변동제조원가에 생산량과 판매량의 차이인 기말제품 수량을 곱한다.

암기 포인트

변동원가계산의 재고에는 변동제조원가만 포함되고,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는 기간원가로 처리된다.

NoteBase

문 29. (주)세무는 20x1년 제품 A와 B를 각각 1,800개와 3,000개를 생산·판매하였다. 각 제품은 배치(batch)로 생산되고 있으며, 제품 A와 B의 배치당 생산량은 각각 150개와 200개이다. 활동원가는 총 ₩1,423,000이 발생하였다. 제품생산과 관련된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품 생산을 위한 활동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제품 A에 배부되는 활동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활동	원가동인	활동원가
재료이동	이동횟수	₩189,000
재료가공	기계작업시간	1,000,000
품질검사	검사시간	234,000
합계		₩1,423,000

◯ 제품 A와 B 모두 재료이동은 배치당 2회씩 이루어진다.
◯ 제품 A와 B의 총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300시간과 500시간이다.
◯ 제품 A와 B 모두 품질검사는 배치당 2회씩 이루어지며, 제품 A와 B의 1회 검사시간은 각각 2시간과 1시간이다.

① ₩405,000
② ₩477,000
③ ₩529,000
④ ₩603,000
⑤ ₩635,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 각 활동원가를 해당 원가동인의 실제 사용비율에 따라 제품별로 배부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 A의 배치 수는 1,800개 ÷ 150개 = 12배치이고, 제품 B의 배치 수는 3,000개 ÷ 200개 = 15배치이다.
재료이동의 원가동인은 이동횟수, 재료가공의 원가동인은 기계작업시간, 품질검사의 원가동인은 검사시간이다.
제품 A에 배부되는 세 활동원가를 각각 구한 뒤 합산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제품 A 배부액=활동원가×제품 A의 원가동인 사용량A와 B의 원가동인 총사용량
활동마다 원가동인이 다르므로 재료이동·재료가공·품질검사의 배부율을 각각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재료이동
A의 이동횟수는 12배치 × 2회 = 24회이고, B의 이동횟수는 15배치 × 2회 = 30회이다.
189,000원×(24)/(24+30)=84,000원

2. 재료가공
A와 B의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300시간과 500시간이다.
1,000,000원×(300)/(300+500)=375,000원

3. 품질검사
A의 검사시간은 12배치 × 2회 × 2시간 = 48시간이고, B의 검사시간은 15배치 × 2회 × 1시간 = 30시간이다.
234,000원×(48)/(48+30)=144,000원

4. 제품 A의 총배부액
84,000+375,000+144,000=603,000원

선지 판단

① X — 405,000원은 활동별 배부액 84,000원, 375,000원, 144,000원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니다. 올바른 금액은 603,000원이다.
② X — 477,000원은 계산된 세 활동원가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603,000원이다.
③ X — 529,000원은 각 활동의 서로 다른 원가동인 사용비율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금액은 603,000원이다.
④ O — 제품 A의 재료이동원가 84,000원, 재료가공원가 375,000원, 품질검사원가 144,000원의 합계가 603,000원이다.
⑤ X — 635,000원은 세 활동별 배부액의 합계보다 32,000원 많다. 올바른 금액은 603,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품질검사의 원가동인은 검사횟수가 아니라 검사시간이다. 제품별 1회 검사시간이 다르므로 A는 24회에 2시간을 곱한 48시간, B는 30회에 1시간을 곱한 30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배치 수를 생산량 자체로 보거나 세 활동에 하나의 배부기준을 공통 적용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품별 배치 수를 구하고, 각 활동에 제시된 원가동인의 총사용량과 제품별 사용량을 따로 산정한다. 그다음 활동별 원가에 제품의 사용비율을 곱하고 마지막에 활동별 배부액을 합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활동기준원가계산은 '배치 수 확인 → 활동별 원가동인 사용량 계산 → 활동별 배부 → 합산'의 순서이다.

NoteBase

문 30.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시간당 ₩160씩 예정배부하고 있다. 20x1년 실제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80,00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기말재고자산(재공품과 제품)과 매출원가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20x1년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6,000을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배분하였다. 20x1년 실제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① 1,000시간

② 1,100시간

③ 1,125시간

④ 1,200시간

⑤ 1,250시간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배부차이의 총액과 과대배부 여부를 판단한 뒤, 예정배부액을 예정배부율로 나누어 실제 직접노무시간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실제발생 제조간접원가 180,000원, 예정배부율 직접노무시간당 160원, 기말재고자산에 배분된 차이 6,000원, 재고자산 배분비율 30%이다.
구해야 할 값: 실제발생 직접노무시간이다.
주의할 조건: 배부차이를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했으므로 제조간접원가는 과대배부된 것이다.

사용할 공식

$V = \frac{6{,}000}{0.30}$
$A = F + V$
$H = \frac{A}{160}$
여기서 V는 총 배부차이, A는 예정배부액, F는 실제발생 제조간접원가, H는 실제 직접노무시간이다.
예정배부액은 실제 직접노무시간에 시간당 예정배부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6,000원이 총 배부차이의 30%이므로 $V = 6{,}000 \div 0.30 = 20{,}000$원이다.
2. 재고자산에서 차감한 것은 과대배부차이를 배분한 것이므로 예정배부액은 실제발생액보다 20,000원 많다.
따라서 $A = 180{,}000 + 20{,}000 = 200{,}000$원이다.
3.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H = 200{,}000 \div 160 = 1{,}250$시간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1,000시간이면 예정배부액은 160,000원으로, 계산된 예정배부액 20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250시간이다.
② X — 1,100시간이면 예정배부액은 176,000원으로, 200,000원보다 작다. 올바른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250시간이다.
③ X — 1,125시간이면 예정배부액은 180,000원으로 실제발생액과 같아 배부차이가 0원이 된다. 문제에서는 총 배부차이가 20,000원이므로 올바른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250시간이다.
④ X — 1,200시간이면 예정배부액은 192,000원이고 과대배부차이는 12,000원에 불과하다. 올바른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250시간이다.
⑤ O — 1,250시간에 시간당 160원을 곱하면 예정배부액은 200,000원이다. 실제발생액 180,000원보다 20,000원 많아 문제의 과대배부차이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6,000원을 총 배부차이로 보거나, 재고자산에서 차감한다는 표현을 과소배부로 해석하면 틀린다. 6,000원은 총 차이의 30%이므로 먼저 20,000원을 구하고, 재고와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는 과대배부차이이므로 실제발생액에 더해 예정배부액을 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안분된 금액과 비율로 총 배부차이를 먼저 구한다. 재고자산·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면 과대배부이므로 예정배부액은 실제발생액보다 크고, 가산하면 과소배부이므로 예정배부액은 실제발생액보다 작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예정배부액을 예정배부율로 나눈다.

암기 포인트

차감 배분은 과대배부, 과대배부액은 예정배부액에서 실제발생액을 뺀 금액이다.

NoteBase

문 31.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A와 B는 모두 절단공정과 조립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20x1년 각 공정에서의 직접노무인력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A와 B의 직접재료원가는 각각 ₩20,000과 ₩15,000이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20%를 예정배부한다. 제품 A의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절단공정	조립공정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30,000	₩40,000
실제직접노무시간	제품 A	1,200시간	600시간
	제품 B	800시간	200시간

① ₩125,600

② ₩126,000

③ ₩132,000

④ ₩138,000

⑤ ₩142,4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정별 시간당 직접노무임률로 제품 A의 직접노무원가를 구한 뒤, 직접노무원가의 120%를 제조간접원가로 예정배부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 A 직접재료원가: ₩20,000
절단공정: 총 직접노무원가 ₩30,000, A 1,200시간, B 800시간
조립공정: 총 직접노무원가 ₩40,000, A 600시간, B 200시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직접노무원가의 120%
재공품이 없으므로 계산한 당기총제조원가가 곧 당기제품제조원가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공정별 시간당 임률은 다음과 같다.
시간당 임률=공정의 직접노무원가공정의 총 직접노무시간
제품 A의 직접노무원가는 각 공정의 시간당 임률에 제품 A의 해당 공정 직접노무시간을 곱하여 합산한다.
제조간접원가=제품 A 직접노무원가× 120\%
당기제품제조원가=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
공정마다 시간당 임률이 다르므로 절단공정과 조립공정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절단공정의 시간당 임률은 ₩30,000 ÷ (1,200시간 + 800시간) = 시간당 ₩15이다. 따라서 제품 A의 절단공정 직접노무원가는 ₩15 × 1,200시간 = ₩18,000이다.
2. 조립공정의 시간당 임률은 ₩40,000 ÷ (600시간 + 200시간) = 시간당 ₩50이다. 따라서 제품 A의 조립공정 직접노무원가는 ₩50 × 600시간 = ₩30,000이다.
3. 제품 A의 직접노무원가는 ₩18,000 + ₩30,000 = ₩48,000이다.
4. 제품 A에 예정배부할 제조간접원가는 ₩48,000 × 120% = ₩57,600이다.
5. 제품 A의 당기제품제조원가는 ₩20,000 + ₩48,000 + ₩57,600 = ₩125,600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공정별 임률로 계산한 직접노무원가 ₩48,000과 그 120%인 제조간접원가 ₩57,600을 직접재료원가 ₩20,000에 더하면 ₩125,600이다.
② X — ₩126,000은 계산 결과보다 ₩400 크다. 올바른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5,600이다.
③ X — ₩132,000은 공정별로 계산한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산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5,600이다.
④ X — ₩138,000은 제품 A의 직접노무원가 ₩48,000에 120%를 적용한 제조간접원가 ₩57,600을 사용하면 나오지 않는다. 올바른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5,600이다.
⑤ X — ₩142,400은 공정별 시간당 임률에 제품 A의 작업시간을 곱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5,600이다.

오답 포인트

절단공정과 조립공정의 임률을 하나로 합쳐 배부하면 안 된다. 또한 '직접노무원가의 120%'는 직접노무원가에 포함된 총액이 아니라 별도로 배부할 제조간접원가이므로, 직접노무원가 ₩48,000과 제조간접원가 ₩57,600을 모두 더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정별 총 직접노무원가를 공정별 총 직접노무시간으로 나누어 각 임률을 구하고, 제품별 사용시간을 곱해 직접노무원가를 계산한다. 그다음 예정배부율을 적용한 제조간접원가와 직접재료원가를 합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공정별 임률 → 제품별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 → 세 원가요소 합산의 순서이다.

문 32.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거쳐 분리점에서 주산물 A와 B, 부산물 C를 생산하고 있다. 20x1년 결합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는 2, 200kg이며, 결합원가는 ₩31,960 발생하였다. 제품 A와 부산물 C는 추가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품 B는 추가가공하여 최종 완성된다. 부산물의 원가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의 순실현가치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20x1년 생산 및 판매자료는 다음과 같다.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제품 A에는 ₩13,950이 배분되었다. 부산물 C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단, 재공품은 없다.)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단위당 판매가격	결합원가 배분액
제품 A	1,350kg	-	₩100	₩13,950
제품 B	550	₩11,000	320	?
부산물 C	300	-	?	?
	2,200kg			₩31,960

① ₩3.0

② ₩3.2

③ ₩3.4

④ ₩3.6

⑤ ₩3.8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부산물의 생산시점 순실현가치를 먼저 결합원가에서 차감하고, 남은 결합원가를 주산물 A와 B의 순실현가치 비율로 배분하여 부산물 C의 단위당 판매가격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 A: 생산량 1, 350kg, 단위당 판매가격 100원, 추가가공원가 없음, 결합원가 배분액 13,950원
제품 B: 생산량 550kg, 단위당 판매가격 320원, 추가가공원가 11,000원
부산물 C: 생산량 300kg, 추가가공원가 없음
전체 결합원가: 31,960원
주의할 조건: 생산기준법에서는 부산물의 생산시점 순실현가치를 결합원가에서 차감한 뒤 나머지를 주산물에 배분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주산물 순실현가치 = 판매가치 −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이다.
A의 순실현가치: $1,350 \times 100 = 135,000$원
B의 순실현가치: $550 \times 320 - 11,000 = 165,000$원
따라서 A와 B의 배분비율은 $135,000 : 165,000 = 9 : 11$이다. A에 배분된 금액과 이 비율을 이용하면 주산물에 배분된 결합원가 총액을 구할 수 있고, 전체 결합원가와의 차이가 부산물 C의 생산시점 순실현가치가 된다.

계산 과정

1. A의 배분비율은 $9/(9+11) = 0.45$이다.
2. 주산물 A와 B에 배분된 결합원가 총액은 $13,950/0.45 = 31,000$원이다.
3. 부산물 C의 생산시점 순실현가치는 $31,960 - 31,000 = 960$원이다.
4. C는 추가가공원가가 없으므로 이 960원이 C의 총판매가치이다. 따라서 단위당 판매가격은 $960/300 = 3.2$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3.0원은 계산된 C의 단위당 판매가격 3.2원과 다르다. 틀린 표현 '3.0원'은 '3.2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C의 생산시점 순실현가치 960원을 생산량 $300kg$으로 나누면 단위당 판매가격은 3.2원이다.
③ X — 3.4원은 계산 결과 3.2원과 다르다. 틀린 표현 '3.4원'은 '3.2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3.6원은 계산 결과 3.2원과 다르다. 틀린 표현 '3.6원'은 '3.2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3.8원은 계산 결과 3.2원과 다르다. 틀린 표현 '3.8원'은 '3.2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B의 단위당 판매가격 320원에 생산량을 곱한 176,000원을 그대로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순실현가치법에서는 B의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 11,000원을 차감하여 165,000원으로 계산한다. 또한 A의 배분액 13,950원을 전체 결합원가로 오인하지 않고, A의 45% 배분비율로 나누어 주산물 전체 배분액 31,000원을 먼저 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주산물의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하여 순실현가치 비율을 구한다. 다음으로 이미 제시된 한 주산물의 배분액을 그 주산물의 배분비율로 나누어 주산물 전체 배분액을 역산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결합원가와의 차이를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로 보고, 추가가공원가가 없으면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판매가격을 구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생산기준법의 부산물 순실현가치 = 전체 결합원가 – 주산물 배분 결합원가이다. 추가가공원가가 없으면 부산물 순실현가치는 곧 부산물 판매가치이다.

NoteBase

문 33. (주)세무의 품질관리 활동원가는 다음과 같다. 위 원가(비용)를 다양한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분석한 결과, 예방원가(prevention cost)를 현재보다 50% 증가시키면 외부실패원가(external failure cost)를 현재보다 4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실행할 경우, 회사의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활동	원가(또는 비용)
공손품 재작업	₩400
납품업체 평가	500
불량품 폐기	600
완제품 검사	700

활동	원가(또는 비용)
보증수리원가	₩2,000
반품 재작업	1,000
품질교육훈련	1,000
재공품 검사	300

① ₩400

② ₩450

③ ₩690

④ ₩700

⑤ ₩85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품질원가의 활동별 분류를 바탕으로 예방원가 증가액과 외부실패원가 절감액을 계산한 뒤, 두 금액의 순효과로 이익 증가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예방원가는 납품업체 평가 500원과 품질교육훈련 1,000원이므로 현재 1,500원이다.
외부실패원가는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뒤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보증수리원가 2,000원과 반품 재작업 1,000원이 해당하며, 현재 3,000원이다.
예방원가는 현재보다 50% 증가하고 외부실패원가는 현재보다 40% 감소한다. 다른 품질원가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사용할 공식

이익 증가액=외부실패원가 절감액-예방원가 증가액
외부실패원가의 감소는 비용 절감으로 이익을 늘리지만, 예방원가의 증가는 비용 증가로 이익을 줄이므로 두 효과를 차감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예방원가 증가액은 1,500 × 50% = 750원이므로 비용이 750원 증가한다.
2. 외부실패원가 절감액은 3,000 × 40% = 1,200원이므로 비용이 1,200원 감소한다.
3. 순이익 증가액은 1,200 − 750 = 45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순이익 증가액은 450원이므로 '₩400'은 틀린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450'이다.
② O — 외부실패원가 절감액 1,200원에서 예방원가 증가액 750원을 빼면 450원이므로 옳다.
③ X — 순이익 증가액은 450원이므로 '₩690'은 틀린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450'이다.
④ X — 순이익 증가액은 450원이므로 '₩700'은 틀린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450'이다.
⑤ X — 순이익 증가액은 450원이므로 '₩850'은 틀린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450'이다.

오답 포인트

예방원가 1,500원 자체를 비용 증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50%인 750원만 증가액으로 계산한다. 또한 외부실패원가가 40% 감소하여 생기는 1,200원은 이익 증가 요인이지만, 예방원가 증가액 750원은 이익 감소 요인이므로 두 금액을 더하지 않고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활동을 품질원가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현재 총액에 변화율을 적용한다. 그다음 비용 감소액은 이익 증가로, 비용 증가액은 이익 감소로 반영하여 순효과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예방원가 증가와 실패원가 감소가 함께 주어지면 이익 증가액은 '실패원가 절감액 - 예방원가 추가액'이다.

NoteBase

문 34.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 단위당 변동원가는 ₩60으로 일정하나, 고정원가는 제품 생산범위에 따라 상이하다. 제품 생산범위가 첫 번째 구간(1~1,000단위)에서 두 번째 구간(1,001~2,000단위)으로 넘어가면 고정원가가 ₩17,600 증가한다. 첫 번째 구간의 손익분기점이 860단위인 경우, 두 번째 구간의 손익분기점은 몇 단위인가?

① 1,150단위

② 1,200단위

③ 1,250단위

④ 1,300단위

⑤ 1,440단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첫 번째 구간의 고정원가를 역산한 뒤, 증가한 고정원가를 반영하여 두 번째 구간의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가격: 단위당 100원
변동원가: 단위당 60원
단위당 공헌이익: 40원
첫 번째 구간의 손익분기점: 860단위
두 번째 구간에서 증가하는 고정원가: 17,600원
구해야 할 값: 두 번째 구간의 손익분기점

사용할 공식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가격-단위당 변동원가이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원가 ÷ 단위당 공헌이익이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총공헌이익과 고정원가가 같으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한다.
100-60=40원
2. 첫 번째 구간의 고정원가를 역산한다.
860단위×40원=34,400원
3. 두 번째 구간의 고정원가를 구한다.
34,400+17,600=52,000원
4. 두 번째 구간의 손익분기점을 구한다.
52,000원÷40원=1,300단위
1,300단위는 두 번째 생산구간인 1,001~2,000단위 안에 있으므로 구간 조건도 충족한다.

선지 판단

① X — 1,150단위의 총공헌이익은 46,000원으로 두 번째 구간의 고정원가 52,000원보다 6,000원 적다. 올바르게는 손익분기점이 1,300단위이다.
② X — 1,200단위의 총공헌이익은 48,000원으로 고정원가보다 4,000원 적다. 올바르게는 손익분기점이 1,300단위이다.
③ X — 1,250단위의 총공헌이익은 50,000원으로 고정원가보다 2,000원 적다. 올바르게는 손익분기점이 1,300단위이다.
④ O — 1,300단위의 총공헌이익은 52,000원으로 두 번째 구간의 고정원가 52,000원과 같으므로 손익분기점이다.
⑤ X — 1,440단위의 총공헌이익은 57,600원으로 고정원가보다 5,600원 많아 이미 이익이 발생한다. 올바르게는 손익분기점이 1,300단위이다.

오답 포인트

첫 번째 구간의 손익분기점 860단위에 증가 고정원가 17,600원을 곧바로 결합하면 안 된다. 먼저 860단위에 단위당 공헌이익 40원을 곱해 기존 고정원가 34,400원을 구한 뒤, 증가액을 더해 두 번째 구간의 총고정원가 52,000원을 산정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계고정원가 문제는 단위당 공헌이익 계산 → 기존 손익분기점으로 기존 고정원가 역산 → 해당 구간의 고정원가 반영 → 새 손익분기점 계산 → 계산값의 구간 포함 여부 확인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 값이며, 단계고정원가가 변하면 해당 구간의 총고정원가를 먼저 다시 구한다.

NoteBase

문 35. (주)세무는 A, B, C 세 종류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각 제품별 고정원가는 회사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원가 ₩90,000을 각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으로, 제품 생산 여부나 생산 및 판매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 C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제품 A의 매출액은 50% 증가하고, 제품 B의 매출액은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C의 생산을 중단하면 회사 전체 이익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제품 A	제품 B	제품 C
매 출 액	₩100,000	₩200,000	₩150,000
변동원가	70,000	110,000	130,000
고정원가	20,000	40,000	30,000
이 익	10,000	50,000	(10,000)

① ₩1,000

② ₩3,000

③ ₩5,000

④ ₩7,000

⑤ ₩9,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품 중단 의사결정에서는 배부된 고정원가를 제외하고, 중단으로 사라지는 공헌이익과 다른 제품에서 새로 생기는 공헌이익을 비교한다.

조건 정리

제품 C의 매출액은 150,000원, 변동원가는 130,000원이므로 공헌이익은 20,000원이다. 회사 전체 고정원가 90,000원은 제품별 매출액에 따라 배부되었을 뿐이며 C를 중단해도 계속 발생한다. C를 중단하면 제품 A의 매출액은 100,000원에서 50% 증가하고, 제품 B의 매출액은 변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공헌이익률=매출액-변동원가매출액

이익 변동=A의 추가 공헌이익-C의 상실 공헌이익

고정원가는 C의 생산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원가이다. 따라서 제품별로 배부된 고정원가나 회계상 제품이익이 아니라 공헌이익의 증감을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제품 C의 상실 공헌이익은 150,000원 - 130,000원 = 20,000원이다.
2. 제품 A의 공헌이익률은 $\frac{100,000 - 70,000}{100,000} = 30\%$이다.
3. 제품 A의 매출 증가액은 100,000원 × 50% = 50,000원이므로 추가 공헌이익은 50,000원 × 30% = 15,000원이다.
4. 전체 이익 변동은 15,000원 - 20,000원 = -5,000원이다. 따라서 회사 전체 이익은 5,000원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X — '1,000원 감소'는 C의 상실 공헌이익 20,000원과 A의 추가 공헌이익 15,000원의 차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5,000원 감소이다.
② X — '3,000원 감소'는 관련 공헌이익의 순감소액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5,000원 감소이다.
③ O — C의 공헌이익 20,000원을 잃지만 A에서 공헌이익 15,000원이 추가되므로 전체 이익은 5,000원 감소한다.
④ X — '7,000원 감소'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5,000원 감소이다.
⑤ X — '9,000원 감소'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5,000원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제품 C는 배부 고정원가 때문에 회계상 10,000원의 손실로 보이지만, C를 중단해도 그 고정원가 30,000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적자 제품을 없애면 손실액만큼 이익이 증가한다'고 판단하거나, A의 매출 증가액 50,000원에 공헌이익률이 아니라 이익률을 적용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품의 유지·중단 문제에서는 먼저 회피 가능한 원가만 가려낸다. 회피 불가능한 배부 고정원가는 제외하고, 중단 제품의 상실 공헌이익과 대체·연계 제품의 추가 공헌이익을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중단 의사결정의 핵심은 제품별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사라지는 공헌이익 - 새로 생기는 공헌이익'이다.

NoteBase

문 36. (주)세무는 사업부 A와 B를 이익중심점으로 두고 있다. 사업부 A는 부품 S를 생산하여 사업부 B에 대체하거나 외부에 판매할 수 있으며, 사업부 B는 완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품 S를 사업부 A에서 구입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부품 S 1,000단위를 대체하는 경우 사업부 A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160이다. 부품 S 1,000단위를 내부대체하면 대체하지 않는 것에 비해 회사 전체 이익이 ₩50,000 증가한다. 이 경우 부품 S 1,000단위에 대한 사업부 B의 단위당 최대대체가격(M)과 대체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을 두 사업부가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대체가격(E)의 합(M+E)은?

① ₩370

② ₩380

③ ₩385

④ ₩390

⑤ ₩395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회사 전체의 내부대체 이익을 단위당 이익으로 환산하여 사업부 B의 최대대체가격과 두 사업부가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는 대체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사업부 A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 160원
내부대체 수량: 1,000단위
회사 전체의 이익 증가액: 50,000원
구해야 할 값: 사업부 B의 단위당 최대대체가격 M과 균등분배 대체가격 E의 합

사용할 공식

단위당 회사 전체 이익 증가액은 최대대체가격과 최소대체가격의 차이이다.
$M - 160 = \frac{50{,}000}{1{,}000}$
두 사업부가 대체로 인한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려면 대체가격은 최소대체가격과 최대대체가격의 중간값이다.
$E = \frac{160 + M}{2}$
사업부 A는 대체가격이 최소대체가격보다 높은 만큼 이익을 얻고, 사업부 B는 최대대체가격이 실제 대체가격보다 높은 만큼 이익을 얻으므로 두 이익을 같게 하는 중간값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단위당 회사 전체 이익 증가액은 50,000원 ÷ 1,000단위 = 50원이다.
2. $M - 160 = 50$이므로 $M = 210$원이다.
3. $E = (160 + 210)/2 = 185$원이다. 이때 사업부 A의 단위당 증가이익은 25원이고 사업부 B의 단위당 증가이익도 25원이다.
4. 따라서 $M + E = 210 + 185 = 395$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계산 결과 $M + E$는 395원이므로 '370원'은 틀리며 '395원'으로 고쳐야 한다. 370원은 균등분배가격 185원을 두 번 더한 값으로, M 대신 E를 중복한 경우이다.
② X — 계산 결과 $M + E$는 395원이므로 '380원'은 틀리며 '395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계산 결과 $M + E$는 395원이므로 '385원'은 틀리며 '395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계산 결과 $M + E$는 395원이므로 '390원'은 틀리며 '395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M = 210$원이고 $E = 185$원이므로 그 합은 395원이다.

오답 포인트

회사 전체 이익 증가액 50,000원을 그대로 가격 차이에 더하면 안 된다. 먼저 1,000단위로 나누어 단위당 이익 50원을 구해야 한다. 또한 균등분배가격 E는 전체 이익의 절반인 25원을 최소대체가격 160원에 더한 185원이지, M과 같은 값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전체 이익 증가액을 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협상 가능 폭을 구한다. 그 폭을 최소대체가격에 더하면 최대대체가격이고, 폭의 절반을 최소대체가격에 더하면 균등분배 대체가격이다.

암기 포인트

최대대체가격 = 최소대체가격 + 단위당 전체 이익, 균등분배가격 = 최소대체가격 + 단위당 전체 이익의 절반이다.

NoteBase

문 37. (주)세무는 두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각 공정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1공정 완성품은 외부 판매시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제2공정에서 추가가공 하여 완제품(양품)을 생산한 후 단위당 ₩120에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제1공정에서는 공손이 발생하지 않지만, 제2공정 투입량의 5%는 제2공정 종점에서 공손이 되며,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다. ₩80,000을 추가 투입하여 제1공정의 최대생산능력을 1,000단위 증가시킬 수 있다면, 회사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제1공정	제2공정
최대생산능력	8,000단위	10,000단위
총 고정원가	₩400,000	₩200,000
단위당 변동원가	₩20	₩10

① ₩4,000

② ₩4,500

③ ₩10,000

④ ₩10,500

⑤ ₩14,5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증분수익에서 증분변동원가와 추가 고정원가를 차감하여 증분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제2공정의 종점 공손률 5%는 판매 가능한 양품 수량에 반영하되, 제2공정 변동원가는 투입된 1,000단위 모두에 발생한다.

조건 정리

제1공정의 추가 생산능력: 1,000단위
제2공정의 여유 생산능력: 2,000단위이므로 추가 1,000단위를 전부 가공할 수 있다.
제2공정 공손률: 5%
완제품 판매가격: 단위당 ₩120
추가 생산분의 단위당 변동원가: 제1공정 ₩20, 제2공정 ₩10
제1공정 증설원가: ₩80,000
기존 총고정원가는 증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증분이익 계산에서 제외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추가 양품 수량=추가 투입량×(1-공손률)
증분이익=증분수익-증분변동원가-증설원가
생산능력 확대 여부는 기존의 총손익이 아니라 의사결정으로 달라지는 수익과 원가만 비교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추가 양품 수량은 $1{,}000 \times (1 - 0.05) = 950$단위이다.
2. 증분수익은 $950 \times 120 = 114{,}000$원이므로 ₩114,000이다.
3. 제1공정 증분변동원가는 $1{,}000 \times 20 = 20{,}000$원이므로 ₩20,000이다.
4. 제2공정은 공손품을 포함한 1,000단위를 모두 가공하므로 증분변동원가는 $1{,}000 \times 10 = 10{,}000$원이므로 ₩10,000이다.
5. 증분이익은 $114{,}000 - 20{,}000 - 10{,}000 - 80{,}000 = 4{,}000$원이므로 ₩4,000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된 증분이익이 ₩4,000이므로 옳다.
② X — ₩4,500은 제2공정 변동원가를 양품 950단위에만 부과하여 $950 \times 10 = 9{,}500$원으로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공손품도 제2공정 종점까지 가공되므로 제2공정 변동원가는 1,000단위에 발생하며, 올바른 증분이익은 ₩4,000이다.
③ X — ₩10,000은 추가 1,000단위가 모두 판매된다고 보아 공손을 무시할 때 나오는 값이다. 판매 가능한 수량은 950단위이므로 올바른 증분이익은 ₩4,000이다.
④ X — ₩10,500은 공손을 무시하여 수익을 1,000단위로 계산하면서 제2공정 변동원가는 양품 950단위에만 부과할 때 나오는 값이다. 수익은 950단위, 제2공정 변동원가는 투입량 1,000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올바른 증분이익은 ₩4,000이다.
⑤ X — ₩14,500은 계산된 증분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증분수익 ₩114,000에서 제1·제2공정의 증분변동원가 ₩30,000과 증설원가 ₩80,000을 차감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4,000이다.

오답 포인트

공손률 5%는 판매수량을 950단위로 줄이지만, 공손이 제2공정 종점에서 발생하므로 제2공정 가공원가는 공손품을 포함한 투입량 1,000단위에 발생한다. 또한 기존 총고정원가 ₩600,000은 증설로 달라지지 않으며, 새로 발생하는 증설원가 ₩80,000만 관련원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증설 후 후속 공정의 생산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공손 발생 시점에 따라 판매수량과 원가부담 수량을 구분한다. 그다음 증분수익에서 증분변동원가와 추가 고정원가만 차감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종점 공손은 판매량은 줄이지만 해당 공정의 가공원가는 줄이지 않는다. 증설 의사결정에서는 변하지 않는 기존 고정원가를 제외한다.

NoteBase

문 38. (주)세무는 기계 A, B 중 하나를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신제품을 생산하려 한다.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성과표(payoff table)는 다음과 같다. 성과표에서 P(Si)는 확률을 의미하고, 금액은 이익을 의미한다. 기계 A의 기대이익이 기계 B의 기대이익보다 더 크며, 호황일 때는 기계 A의 이익이 더 크고 불황일 때는 기계 B의 이익이 더 크다. 완전정보의 기대가치(EVPI)가 ₩600인 경우, 성과표에서 K는 얼마인가?

상황 / 대안	S_1 = 호황 $P(S_1)$ = 0.4	S_2 = 불황 $P(S_2)$ = 0.6
기계 A	₩9,000	₩1,000
기계 B	7,000	K

① ₩1,500

② ₩2,000

③ ₩2,200

④ ₩2,300

⑤ ₩2,5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완전정보의 기대가치(EVPI)를 완전정보가 있을 때의 기대이익과 완전정보가 없을 때의 최대 기대이익의 차이로 계산하여 미지수 K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금액 단위는 원이다.
호황의 확률은 0.4, 불황의 확률은 0.6이다.
기계 A의 이익은 호황 9,000원, 불황 1,000원이고, 기계 B의 이익은 호황 7,000원, 불황 K원이다.
호황에는 기계 A, 불황에는 기계 B의 이익이 더 크며, 완전정보가 없을 때에는 기대이익이 더 큰 기계 A를 선택한다.

사용할 공식

$EVPI = EV_{wPI} - \max(EMV_A, EMV_B)$
완전정보가 있으면 각 상황에서 이익이 큰 대안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이 문항에서는 기계 A가 완전정보 없이 선택되는 최적 대안이고, 완전정보로 인한 개선은 불황에 기계 A 대신 기계 B를 선택할 때 발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계 A의 기대이익은 다음과 같다.
$EMV_A = 0.4 \times 9{,}000 + 0.6 \times 1{,}000 = 4{,}200$
2. 완전정보가 있으면 호황에는 기계 A, 불황에는 기계 B를 선택하므로 다음과 같다.
$EV_{WPI} = 0.4 \times 9{,}000 + 0.6K$
3. EVPI가 600원이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0.4 \times 9{,}000 + 0.6K - 4{,}200 = 600$
$0.6K = 1{,}200, \qquad K = 2{,}000$
4. $K = 2{,}000$일 때 기계 B의 기대이익은 $0.4 \times 7{,}000 + 0.6 \times 2{,}000 = 4{,}000$원이므로, 기계 A의 기대이익 4,200원이 더 크다는 조건도 충족한다.

선지 판단

① X — $K = 1{,}500$원이면 $EVPI = 0.6 \times (1{,}500 - 1{,}000) = 300$원으로 주어진 600원과 다르다. 1,500원이 아니라 2,000원이어야 한다.
② O — $K = 2{,}000$원이면 $EVPI = 0.6 \times (2{,}000 - 1{,}000) = 600$원이 되고, 기계 A의 기대이익도 기계 B보다 크다.
③ X — $K = 2{,}200$원이면 EVPI는 720원이다. 2,200원이 아니라 2,000원이어야 한다.
④ X — $K = 2{,}300$원이면 EVPI는 780원이다. 2,300원이 아니라 2,000원이어야 한다.
⑤ X — $K = 2{,}500$원이면 EVPI는 900원이다. 2,500원이 아니라 2,000원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EVPI를 완전정보하의 기대이익 자체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EVPI는 완전정보하의 기대이익에서 완전정보가 없을 때 선택하는 최적 대안의 기대이익을 뺀 값이다. 또한 불황에 기계 B를 선택할 때의 추가 이익 $K - 1{,}000$에는 불황 확률 0.6을 곱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대안의 기대이익을 구해 완전정보가 없을 때의 최적 대안을 정한다. 다음으로 각 상황별 최대 이익을 이용해 완전정보하의 기대이익을 구한 뒤, 두 값의 차이를 EVPI와 같게 놓는다.

암기 포인트

EVPI는 '상황별 최선의 기대값 - 현재 최선 대안의 기대값'이다. 이 문항에서는 불황 때만 선택이 바뀌므로 $EVPI = 0.6(K - 1{,}000)$이다.

NoteBase

문 39.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 총 고정원가는 ₩1,900,000으로 예상된다. 세법에 의할 경우 총 고정원가 중 ₩100,000과 단위당 변동원가 중 ₩50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무에 적용될 세율이 20%인 경우 세후순이익 ₩41,000을 얻기 위한 제품의 판매수량은?

① 4,050단위

② 4,450단위

③ 4,750단위

④ 5,000단위

⑤ 5,100단위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의 차이를 반영하여 목표 세후순이익을 달성하는 판매수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단위당 공헌이익은 1,000원 - 600원 = 400원이다.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원 - 50원 = 550원이고, 손금으로 인정되는 고정원가는 1,900,000원 - 100,000원 = 1,800,000원이다.
따라서 판매수량을 Q라고 하면 회계상 세전이익은 $400Q - 1{,}900{,}000$, 과세소득은 $450Q - 1{,}800{,}000$이다.

사용할 공식

세후순이익은 회계상 세전이익에서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차감하여 구한다.
세후순이익=(400Q-1,900,000)-0.2(450Q-1,800,000)
세법상 손금불산입액이 있으므로 회계상 세전이익에 단순히 1-세율을 곱하면 안 되고, 과세소득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목표 세후순이익 41,000원을 식에 대입한다.
$(400Q - 1{,}900{,}000) - 0.2(450Q - 1{,}800{,}000) = 41{,}000$
$400Q - 1{,}900{,}000 - 90Q + 360{,}000 = 41{,}000$
$310Q = 1{,}581{,}000$
$Q = 5{,}100$
따라서 필요한 판매수량은 5,100단위이다.

선지 판단

① X — 4,050단위를 판매하면 세후순이익은 -284,500원이므로 목표액에 미달한다. 틀린 수량 4,050단위는 5,10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② X — 4,450단위를 판매하면 세후순이익은 -160,500원이므로 목표액에 미달한다. 틀린 수량 4,450단위는 5,10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③ X — 4,750단위는 회계상 손익분기 판매량 1,900,000/400일 뿐이며, 이때 세후순이익은 -67,500원이다. 틀린 수량 4,750단위는 5,10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④ X — 5,000단위를 판매하면 회계상 세전이익은 100,000원이지만 법인세 90,000원을 차감한 세후순이익은 10,000원이다. 틀린 수량 5,000단위는 5,10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⑤ O — 5,100단위에서 회계상 세전이익은 140,000원, 과세소득은 495,000원, 법인세는 99,000원이므로 세후순이익은 41,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총 고정원가 중 100,000원과 단위당 변동원가 중 50원은 손금불산입이므로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이 서로 다르다. 특히 ③의 4,750단위는 회계상 손익분기점만 계산한 값이며, 목표 세후순이익과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수량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회계상 세전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을 각각 구한 뒤, 세후순이익 = 회계상 세전이익 -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순서로 목표이익 방정식을 세운다.

암기 포인트

손금불산입이 있으면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을 분리한다. 세후순이익은 회계상 세전이익에서 세무상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NoteBase

문 40. (주)세무는 당기에 영업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실제원가계산을 사용한다. 당기 제품 생산량은 2,000단위이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28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는 ₩320이고, 당기 총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0, 총 고정판매관리비는 ₩300,000이다.
변동제조간접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손익분기점은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손익분기점보다 몇 단위 더 많은가?

① 100단위

② 150단위

③ 200단위

④ 250단위

⑤ 300단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방식의 차이를 반영하여 각각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가격: 단위당 ₩1,000
직접재료원가: 단위당 ₩280
직접노무원가: 단위당 ₩320
고정제조간접원가: 총 ₩200,000
고정판매관리비: 총 ₩300,000
생산량: 2,000단위
변동제조간접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 0원
구해야 할 값: 변동원가계산 손익분기점 판매량에서 전부원가계산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뺀 수량

사용할 공식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Q_V = \frac{F_M + F_S}{P - V}$
여기서 F_M은 고정제조간접원가, F_S는 고정판매관리비, P는 단위당 판매가격, V는 단위당 변동원가이다.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당기 생산량이 2,000단위이므로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계산한 뒤, 판매된 제품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익분기점을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변동원가계산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1,000-₩280-₩320=₩400이다. 전체 고정비 ₩500,000을 단위당 공헌이익 ₩400으로 나누면 손익분기점은 1,250단위이다.
2. 전부원가계산의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0÷2,000단위=₩100이다. 따라서 단위당 제품원가는 ₩280+₩320+₩100=₩700이고, 판매 한 단위당 판매가격과 제품원가의 차이는 ₩300이다. 고정판매관리비 ₩300,000을 단위당 차액 ₩300으로 나누면 손익분기점은 1,000단위이다. 전부원가계산에서는 팔리지 않은 제품에 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기말재고에 남아 당기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손익분기점이 더 낮아진다.
3. 두 손익분기점의 차이는 1,250단위-1,000단위=250단위이다.

선지 판단

① X — 두 손익분기점의 차이는 100단위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250단위이다.
② X — 두 손익분기점의 차이는 150단위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250단위이다.
③ X — 두 손익분기점의 차이는 200단위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250단위이다.
④ O — 변동원가계산의 손익분기점 1,250단위에서 전부원가계산의 손익분기점 1,000단위를 빼면 250단위이다.
⑤ X — 두 손익분기점의 차이는 300단위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250단위이다.

오답 포인트

전부원가계산에서도 고정제조간접원가 ₩200,000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빼면 두 방식의 손익분기점이 같다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 전부원가계산에서는 생산량 2,000단위를 기준으로 단위당 ₩100을 제품원가에 배부하며,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배부된 금액은 기말재고로 이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을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 공헌이익으로 전체 고정비를 회수하는 판매량을 구한다.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눈 단위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하고, 판매량에 대응하여 비용화되는 금액만 반영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전부원가계산은 일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재고로 이연하므로 변동원가계산보다 이익이 크고 손익분기점은 낮아질 수 있다.

NoteBase